

인사말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우 주춤하였던 협회 업무들이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더욱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협회는 2017년 제1회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학술대회 개최를 개최하면서 [한국어린이박물관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제2회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학술대회는 주제가 [한국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술대회는 어린이박물관에서 하는 대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면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만큼 관심과 박물관계에서 어린이가 중요한 심지어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람객으로 인식되어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는 한국어린이박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백서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가 공동으로 [한국어린이박물관 백서]를 발간하면서 31개 회원관 현황을 수록하여 한국 어린이박물관계에서 한 획을 그은 현황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척 사항들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박물관계 선배님들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박물관계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금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가 그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첫 자리로 제3회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학술대회를 [어린이박물관과 순회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나누지 못했었던 여러 정보들을 나누시면서 상호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 어린이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4.24.

제3대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장
김진희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학회별 세부계획서

학 회 명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전체시간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13:00 ~ 15:00		
일 정	내용 / 발표자		
세션 주제	(국문) 어린이박물관과 순회전		
	(영문) Children's Museum and Traveling Exhibition		
13:00-13:30	[제1발표] 해외 어린이박물관 순회전 알아보기 김진희 국립박물관단지 전시교육실장		
13:30-13:50	[제2발표] 체험전시 순회전과 문화 ESG 실천 장화정 재미뮤제 대표		
13:50-14:10	[제3발표] 모두를 위한 다감각 전시 ‘내 마음은 풀 Full’ 김호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사		
14:10-14:30	[제4발표] 과학관 공동기획 ‘별꿀 : 왜 이렇게 생겼어?’ 순회전 강철규 인천어린이과학관 전시기획팀 차장		
14:30-14:45	토론 및 질의 응답		
14:45-15:00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임시총회		

담당자	김진희	연락처	01064495866
주 소	30106 세종특별시 어울누리로 130 국립어린이박물관		

해외 어린이박물관 순회 전시 알아보기

국립박물관단지 전시교육실장 김진희

I. 서론

순회전은 기관간의 상호 네트워크로 협력을 도모하며, 신규 기획 전시의 예산을 줄이고, 전시 철거 등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쓰레기도 줄이며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박물관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순회전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다. 미국 50개주에 어린이박물관이 주 내에 2개가 있다고 고려해도 100여개 기관이 있다.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 순회전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통 3개월 정도 기관에서 운영한다. 먼저 ACM에서 프리먼 재단과 함께 아시아문화 시리즈 2편을 만들었는데 이를 소개하겠다. 그 이후 순회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는 발표자들로 같음하고 현재는 철거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애완동물 순회전만 소개하겠다.

경험치에 의하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재직 시절에 기획 전시를 1년으로 하였으나 전시 운영 후에 전시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여러 고심 끝에 일부분들은 보수를 거쳐서 순회 전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전시 주제는 애완동물로 경기도민의 5:1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어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동물들에게도 사람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놀이식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기관들에 공문으로 사용 신청을 받아 여러 기관들을 순회 하였다. 최소 1~2년의 계획을 거쳐서 일정과 예산들의 협의 하였다. 렌트비는 무료이나 기관에서 운송비와 설치비 그리고 부분 파손된 것을 유지 보수비를 사용 하도록 협의하였다. 관련 내용은 국내 사례를 들 때 소개하겠다. 최근에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전시 폐기시 쓰레기 방지를 위한 것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고 기관들간의 상호 콜라보 등 여러 면에서 순회 전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 순회 전시를 기획할 때 고려할 점들 >

- 기관 고유의 순회 전시로 기획할 것인가? 아니면 기관들 협력으로 진행할 것인가?
- 기관 고유의 순회전이라면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가? 타겟 층, 예산, 면적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기관 협력 순회전이라면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협력 기관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가?
- 년차적인 시리즈의 순회전인가? 1회성의 순회전인가?
- 기획 기간과 제작까지 기간은 어찌되는가? 예산은 검토되었는가?
- 이동시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 철거와 설치 때마다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 체험 전시의 유지 관리에 용이한가?
- 친환경 재료들로 사용이 되었는가?
- 운영 매뉴얼이 있는가? 운영 인력은 몇 명인가?
- 이동비, 철거비, 보수비, 설치비, 혹은 렌탈비는 얼마인가?
- 순회시에 철거 기관과 신규 설치 기관 사이에 전시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인가? 등

II. 본 론

순회전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프리먼 재단에서 운영하였던 아시아문화 시리즈 1, 2 그리고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 순으로 알아보고 끝으로 국내에서 오래전 순회되어 반응이 좋아서 앞서간 주 제였던 애완동물 전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순회 전시

1)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문화 전시 시리즈 : 집, 놀이, 음악, 축하 전

(1) 아시아 문화 전시 시리즈(the Freeman Foundation Asian Culture Exhibit Series, FFACES)

해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미국 ACM의 홈페이지에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순회 전시가 탑재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프리먼 재단은 ACM과 협력하여 ‘프리먼 재단 아시아 문화 전시 시리즈(the Freeman Foundation Asian Culture Exhibit Series, FFACES)’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¹⁾ 미국을 순회하는 2개 그룹의 시리즈로 총 11개의 영향력 있는 전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총 340만 명 방문객으로 집계되었다.²⁾

① 집(Home)

중국, 일본, 몽족 세 나라의 가정의 안과 밖을 살펴보도록 설계되어 각 문화권의 요리와 음식, 원예와 놀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들은 베이징 발코니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는 놀이를 할 수 있고, 연못을 건너고, 종이접기를 하고, 이야기 천을 디자인하고, 몽족 축제를 위해 바비큐를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림 1]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문화 중 ‘집’ 순회 전시물들

1) <https://childrensmuseums.org/ffaces/>

2) 상동

3) <https://childrensmuseums.org/initiatives/asian-culture-exhibit-series/>

4) <https://www.ravenswoodstudio.com/project/asian-cultural-series-exhibit/>

② 놀이(Play)

중국, 일본,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역할 놀이, 이야기, 상징적인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탐험하도록 설계되었다. 중국의 보호 구역에서 팬더에게 먹이를 주는 상징 놀이, 일본의 벚꽃 소품에 참석하는 놀이, 한국의 제주 인어 이야기에서 바닷속 지역을 탐험하는 다이빙을 포함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극동 아시아 3개국의 문화적 풍부함과 다양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놀이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림 2]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문화 중 ‘놀이’ 순회 전시물들

③ 음악(Music)

중국, 일본, 한국(K-pop 포함) 문화권의 타악기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이 연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동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악기는 두드리는 타악기가 가장 적합하므로 아동들은 다이토쿠이지 보울(일본식 노래 그릇)부터 대형 전통 한국 북 드럼까지 다양한 악기를 탐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의 리듬을 배우거나 스스로 즉흥 연주하도록 체험한다.



[그림 3]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문화 중 ‘음악’ 순회 전시물들

④ 축하(Celebrations)

벚꽃 놀이, 등불, 연꽃, 연의 이미지를 통해 3개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의 새해 축하 행사를 탐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아동들은 북 연주와 이야기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작은 극장에서 몬스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부터 아침 식사로 제공되는 다양한 요리를 아이 스파이 게임으로 발견하는 것까지, 아동들은 아시아 새해 축제의 풍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순회 전시를 유치하는 기관마다 홈페이지

5) <https://kidsplaymuseum.org/explore-the-world-with-our-new-asian-culture-exhibit-series/>

6) 상동

7) <https://childrensmuseums.org/ffaces/>

8) <https://www.columbiadailyherald.com/story/news/2021/07/25/amuseum-childrens-museum-debuts-new-asian-culture-exhibit/8042426002/>

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사우스타코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축하 전시를 유치하면서 아시아의 문학, 가상 체험, 아시아 축하문화 학습, 일본의 민속 전래 이야기, 중국 음력 설날의 리본 댄스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⁹⁾ 전시품을 보면 이동식에 맞게 전시품을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다.



중국 새해 축하 식사상 차림 전시¹⁰⁾

한국과 베트남의 축하 전시품¹¹⁾

[그림 4]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문화 중 ‘축하’ 순회 전시물들

(2)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문화 전시(the Freeman Foundation Asian Culture Exhibit) : 동방으로 가라 (GO EAST)

ACM은 상기에 설명한 현재 아시아문화 전시(집, 놀이, 음악, 축하)를 제작하기 전에, 프리먼 재단의 700만 달러 기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획 및 설계를 하여 2004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동방으로 가라(GO EAST)’ 라는 순회 전시를 운영하였다. 미국의 아동과 가족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7개의 전시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중국의 소수 민족인 몽족 등 각 나라별의 문화를 소개하며 미국을 순회하는 전시를 만들었다. 전시 규모는 약300~ 600평 (900~1800 square feet)까지 다양하며, 대상 연령은 아동 만 5세부터 12세까지로 고려했다. 관람객은 연간 500,000명이 방문하였고, 4년간 총 340만명이 방문하였다.

- 맨하탄 어린이박물관에서 기획한 ‘손오공 : 중국 여행’ ,
- 매디슨 어린이박물관에서 기획한 ‘몽족의 마음 ‘,
- 오스틴 어린이박물관 기획과 협력한 삼성어린이박물관의 ‘한국의 노래’ ,
- 휴스턴 어린이박물관에서 기획한 ‘용과 선녀: 설화를 통한 베트남 탐험’ ,
- 보스턴 어린이박물관과 미국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기획한 ‘일본으로부터 온 5명의 친구들: 오늘날 일본의 어린이’ ,
-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이 기획한 ‘ 일본과 자연: 계절의 영혼’ ,
-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과 시애틀 어린이박물관이 기획한 ‘일본으로 점프 : 대중 예술을 통한 문화 발견’

총 7개로 중국 1개, 몽족 1개, 한국 1개, 베트남 1개, 일본 3개의 전시가 있다.¹²⁾ 당시 7개의 전시 중에서 일본의 전시가 3개가 선정되어 필자가 느끼기엔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놀라운 것은 2차로 진행하는 프리먼 재단의 아시아 전시 3종에서 모두 한국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현재의 트렌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야할 것인지 객관적인 시각이 매우 궁금하다.

9) <https://prairieplay.org/seize-the-play/celebrations/>

10) <https://childrensmuseums.org/initiatives/asian-culture-exhibit-series/>

11) <https://www.instagram.com/p/C7SWlxDyZfL/>

12) Increasing U.S. Children and families's Understanding of Asian Cultures: A Final Report (2008),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 p 1-2

2) 미국 어린이박물관의 순회 전시¹³⁾

미국 ACM의 홈페이지에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회 전시를 등록해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다. 이 소개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순회 전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인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의 순회 전시를 중심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순회 전시의 기획과 보유는 해당 기관의 명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어린이박물관들이 많아 순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매우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기획을 하는 인력의 에너지를 줄여 다른 곳으로 집중할 수 있고, 설계와 제작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미국은 대부분 사립 박물관들이라서 렌트시에는 대여비를 지불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공립 박물관들이라서 순회 전시를 보유한 기관에 대여비를 내지는 않는다. 이외에는 유럽의 과학관협회에 아동용으로 적합한 것들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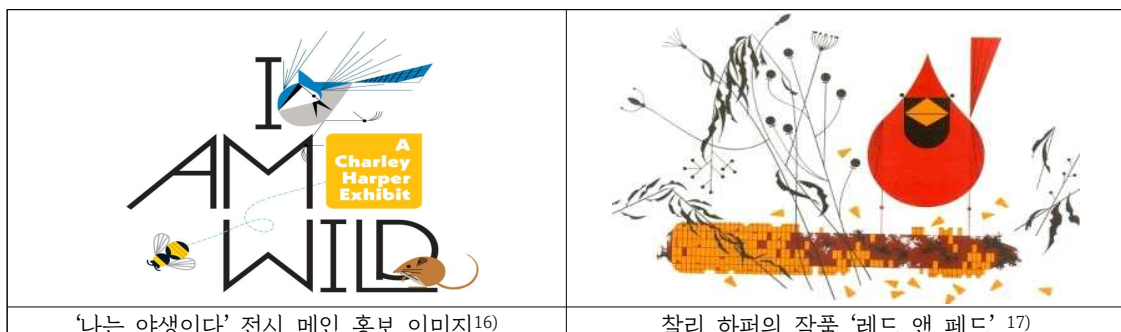
(1)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현재까지 11종의 많은 순회전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이 미국 최대의 어린이문화단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표방한 만큼, 전시 대상 연령대가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를 커버할 수 있고, 주제들도 매우 다양하다. 작가 모 윌렘스의 작품을 펼쳐 놓은 예술적 전시가 2종,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전시가 2종, 동화 기반의 전시가 2종, 발명이나 물품 생산에 관한 전시가 2종, 비행에 관련된 전시가 1종으로 기획되어 있다. 전시 명은 아래와 같다.

‘나는 야생이다:찰리 하퍼’ 전시, ‘높은 목표: 투츠기 에어먼(Tuskegee Airmen)과 함께 활공’ 전시, ‘반대 추상: 모 윌렘스(Mo Willems)’ 전시, ‘루브 골드버그(Rube Goldberg): 유쾌한 발명의 세계’ 전시회!,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감정이 놀이하다’ 전시, ‘에릭 칼: 배고프고 조용하고 외롭고 서투르고 바쁜 전시’, ‘다니엘 타이거의 동네: 멋진 전시’, ‘XOXO: 사랑과 용서’에 대한 전시, ‘촉정 규칙!’ 전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전시, ‘비둘기가 여기 당신의 도시에 온다: 모 윌렘스(Mo Willems)’ 전시이다.

① 나는 야생이다: 찰리 하퍼(Charley Harper)의 전시¹⁴⁾(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어린이 책시리즈 "I Am Wild"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Harper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동들은 6개의 서식지인 사막, 열대 우림, 바다, 하늘, 숲, 도시를 탐험하게 되며, 각 도시에는 Harper가 평생 동안 완성한 미니멀 스타일로 묘사된 다채로운 동물, 곤충, 새가 가득하다. 이 전시는 몰입형 놀이 경험과 학습자 중심의 미술 활동을 혼합했다. 아동들은 우리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생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감사를 갖고, 찰리의 세계에서 자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¹⁵⁾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과 찰리 하퍼 아트 스튜디오가 협력하여 제작했다. 25년 봄부터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에서 첫 전시될 예정이다. 최근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어린이시절 부터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전시라 생각된다.



[그림 5]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나는 야생이다’ 순회 전시 이미지들

13) <https://childrensmuseums.org/classifieds/>

14)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i-am-wild-a-charley-harper-exhibit/#>

15)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i-am-wild-a-charley-harper-exhibit/>

16)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i-am-wild-a-charley-harper-exhibit/#>

17)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y_Harper

② 높은 목표: 투츠기 에어먼(Tuskegee Airmen)과 함께 활공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비행 및 항공학과 관련된 도구와 작업에서 영감을 얻은 체험은 실제 모형과 실습 놀이를 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은 과거와 미래의 꿈에서 영감을 받아 조종사 역할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인류의 우주 개발로 미래로 뻗어가는 관심을 일으키는 전시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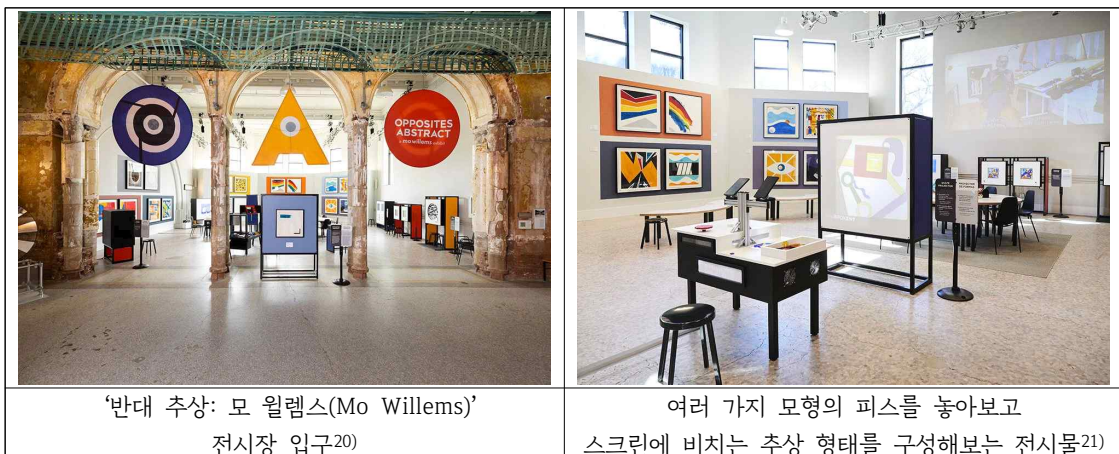
높은 목표 전시 전경

높은 목표 전시물

[그림 6]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높은 목표’ 순회 전시

③ 반대 추상: 모 윌렘스(Mo Willems) 전시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작가 모 윌렘스의 최근 책인 ‘반대 추상’을 기반으로 하며 감성적이고 추상적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전시는 직접 체험, 미술 활동,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공연을 통해 복잡하지만 단순한 반대 개념을 탐구하며 보고 놀 수 있도록 한다. 이 전시는 모든 관람객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미술을 창작하고 반응하도록 영감을 준다. 보지는 못했지만 매우 관심이 가는 아트 체험 전시이며, 액자에 원본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¹⁹⁾



‘반대 추상: 모 윌렘스(Mo Willems)’
전시장 입구²⁰⁾

여러 가지 모형의 피스를 놓아보고
스크린에 비치는 추상 형태를 구성해보는 전시물²¹⁾

[그림 7]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반대 추상’ 순회 전시

18)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aim-high-soaring-with-the-tuskegee-air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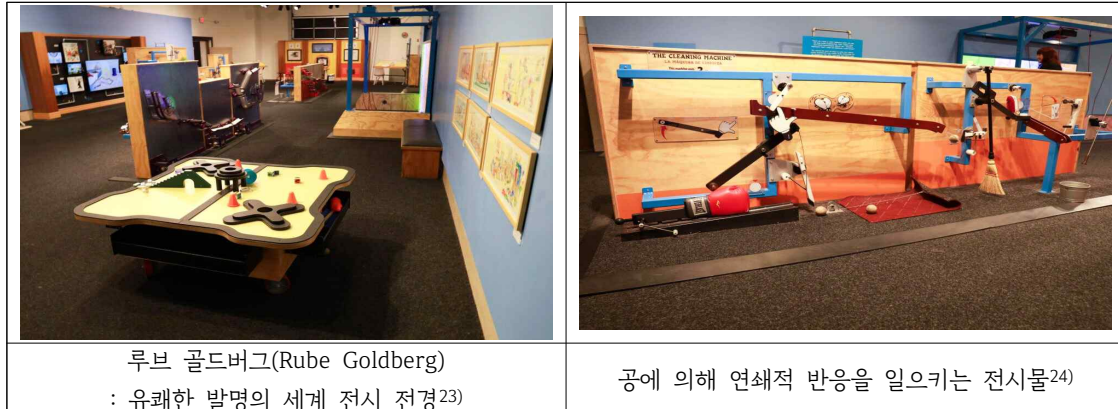
19)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opposites-abstract-a-mo-willems-exhibit/>

20)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opposites-abstract-a-mo-willems-exhibit/>

21)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opposites-abstract-a-mo-willems-exhibit/>

④ 루브 골드버그(Rube Goldberg): 유쾌한 발명의 세계 전시회!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발명가 ‘루브 골드버그’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창의적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이다. 새로운 실물 크기 기계와 루브의 만화 장치를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인 체험형으로 제작하였다. 고전적 기술 원리를 21세기 학습을 위한 STEAM 개념 탐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쇄 반응은 아동들이 매우 좋아하는 아이템이며, 스페인어 추가 설명판이 있다.²²⁾



[그림 8]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루브 골드버그: 유쾌한 발명의 세계 전시회’

⑤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감정 놀이하다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영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식 전시로 아동뿐 아니라 청년층과 노인을 포함한 관람객이 일상 생활에서 감정, 기억, 상상력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핵심 감정인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이 전시 경험은 관람객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설명판이 있다. 아동에게 선호되는 요소 애니와 감정을 다룬 점이 특징이다.



[그림 9]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감정 놀이하다’ 순회 전시

22)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rube-goldberg-the-world-of-hilarious-invention/>

23)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rube-goldberg-the-world-of-hilarious-invention/>

24)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rube-goldberg-the-world-of-hilarious-invention/>

25)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emotions-at-play-with-pixars-inside-out/>

26)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emotions-at-play-with-pixars-inside-out/>

⑥ 에릭 칼 : 배고프고 조용하고 외롭고 서투르고 바쁜 전시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국내에서 선호되는 에릭 칼의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예술가, 독자, 캐릭터로서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놀이는 에릭 칼의 책 5권에서 영감을 받은 활동으로 이뤄졌다. 아주 배고픈 애벌레, 아주 조용한 귀뚜라미, 아주 외로운 반딧불이, 아주 서투른 클릭 비틀, 아주 바쁜 거미가 주인공이다.²⁷⁾



거미줄을 짜보는 전시물²⁸⁾

반딧불이를 눌러 빛을 내볼 수 있는 전시물²⁹⁾

[그림 10]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에릭 칼 : 배고프고 조용하고 외롭고 서투르고 바쁜 전시’

⑦ 다니엘 타이거의 동네: 멋진 전시(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주인공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아동 관람객은 다니엘 동네를 방문하게 되는 전시이다. 관람객은 동반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상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니엘의 노래할 수 있는 전략에 맞춰 놀면서 인생의 작은 교훈을 배우게 된다. 프레드 로저스 제작(Fred Rogers Productions)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아동들의 생활권인 동네는 생태학자 브런펜브레너의 이론을 받쳐주는 전시로 아동 발달에 적합하다.



‘다니엘 타이거의 동네’ 전시장 전경³⁰⁾

시계 공장과 시계 조립을 해보는 전시물³¹⁾

[그림 11]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다니엘 타이거의 동네’ 순회 전시

27)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very-eric-carle-a-very-hungry-quiet-lonely-clumsy-busy-exhibit/>

28)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very-eric-carle-a-very-hungry-quiet-lonely-clumsy-busy-exhibit/>

29)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very-eric-carle-a-very-hungry-quiet-lonely-clumsy-busy-exhibit/>

30)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daniel-tigers-neighborhood-a-grr-if-ific-exhibit/>

31)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daniel-tigers-neighborhood-a-grr-if-ific-exhibit/>

⑧ XOXO: 사랑과 용서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2018년 피츠버그 총격 사건 이후 지역공동체의 감정적 치유를 돕기 위한 전시이다. 국내도 정서는 필요해 보이는 전시이다. 감정에 대한 전시로 놀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무엇이 사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관람객은 질문을 하고, 경청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얼굴 표정, 단어, 움직임 및 예술 제작을 사용하여 사랑과 용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한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야기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사랑과 용서에 대해 배우는 법을 알아갈 수 있다.³²⁾



‘XOXO: 사랑과 용서’ 전시 전경³³⁾

‘XOXO: 사랑과 용서’ 전시물들³⁴⁾

[그림 12]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XOXO: 사랑과 용서’ 순회 전시

⑨ 측정 규칙!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수학, 수리에 관해 집중된 전시로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게 기획되었다.

측정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어렵기도 하다. 이 전시는 높이, 거리, 부피 등을 측정해 보는 전시이다. 기본 사항을 숙지한 다음, 전통적인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 분류해 볼 수 있다. 관람객은 직접 체험을 통해 주변 세계와 관련하여 측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측정 언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측정 규칙!’ 전시 전경³⁵⁾

직접 무게를 달아보는 대형 전시물³⁶⁾

[그림 13]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측정 규칙’ 순회 전시

32)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xoxo-an-exhibit-about-love-and-forgiveness/>

33)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xoxo-an-exhibit-about-love-and-forgiveness/>

34)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xoxo-an-exhibit-about-love-and-forgiveness/>

35)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measurement-rules/>

36)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measurement-rules/>

⑩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산업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물건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방법이 있다. 이 전시는 제조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친숙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절단, 성형, 변형 및 조립의 활동은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 사람,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전시 전경³⁷⁾

물건을 잘라볼 수 있는 체험 전시물³⁸⁾

[그림 14]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순회 전시

⑪ 비둘기가 여기 당신의 도시에 온다: 모 윌렘스(Mo Willems) 전시회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인 코끼리와 비둘기 피기, 도시 비둘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동 관람객은 활동을 통해 작가에게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캐릭터들의 풍부한 사회적, 정서적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작가 모 윌렘스의 일러스트레이션도 함께 전시된다.



‘비둘기가 여기 당신의 도시에 온다
: 모 윌렘스 전시회’ 전경³⁹⁾

세탁소의 세탁기 돌려 물건 찾기 전시물⁴⁰⁾

[그림 15]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비둘기가 여기 당신의 도시에 온다: 모 윌렘스 전시회’ 순회전시

37)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how-people-make-things/>

38)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how-people-make-things/>

39)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the-pigeon-comes-to-your-city-here-a-mo-willems-exhibit/>

40) <https://pittsburghkidsdesign.org/exhibit/the-pigeon-comes-to-your-city-here-a-mo-willems-exhibit/>

(2)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총 10종의 순회 전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타겟은 유아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나 출간물들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들도 있으며, 모든 전시들이 유아의 발달에 잘 맞게 놀이식으로 전시를 연출하였다. ‘월리스와 그로밋 : 시작해보세요’, ‘와일드 크레츠 : 생명체의 힘!’, ‘손 더 쉽 : 이쪽으로 모여라’, ‘와일드 크레츠 : 바다 모험!’, ‘놀라운 성, 토마스와 친구들: 기차를 탐험해 보세요!’, ‘호기심 조지’, ‘이야기 랜드’, ‘공룡: 불과 얼음의 땅’, ‘프레임 : 예술 속으로 들어가다’가 있다. 이 중에서 필자가 흥미있게 판단되는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① 와일드 크레츠 : 생명체의 힘!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미국의 교육적 애니메이션인 아동 방송의 시리즈물을 펼쳐놓은 전시이다. 아동 관람객은 동물 서식지에 폭 빠져 놀라운 생물의 힘을 발견하고 특별한 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탐험한다. 야생의 세계로 들어가 호주의 아웃백 사막, 열대 우림, 남극, 북미 마당 등 전 세계의 서식지에서 동물의 삶을 탐험할 수 있다. 재규어의 은밀함을 이용해 숲을 몰래 지나가고, 거미 원숭이처럼 정글을 휘두르고, 캥거루와 흡을 시험하고,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다.⁴¹⁾ 매우 흥미진진하며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영상이 제공되니 함께 살펴보길 권한다.

	
<p>열대우림서 거미 원숭이처럼 줄타기 전시물⁴²⁾</p>	<p>바다표범처럼 몸을 상하 움직여보며 타는 미끄럼틀⁴³⁾</p>

[그림 16]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와일드 크레츠 : 생명체의 힘!’ 순회 전시

② 손 더 쉽 : 이쪽으로 모여라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아동 관람객들은 농장에서 양 친구들과 헛간 안에서 바쁘게 놀며, 폐기물 더미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하여 정지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돼지 웅덩이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⁴⁴⁾ 밸런스 보드를 뛰어 넘고, 벽을 가로지르고, 타이어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챔피언 양’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입은 채로 돌아다닐 수 있다.

	
<p>헛간 전시물⁴⁵⁾</p>	<p>정원 및 농장 전시물⁴⁶⁾</p>

[그림 17]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손 더 쉽’ 순회 전시

41)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creature-power-the-exhibit/>

42)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creature-power-the-exhibit/>

43)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creature-power-the-exhi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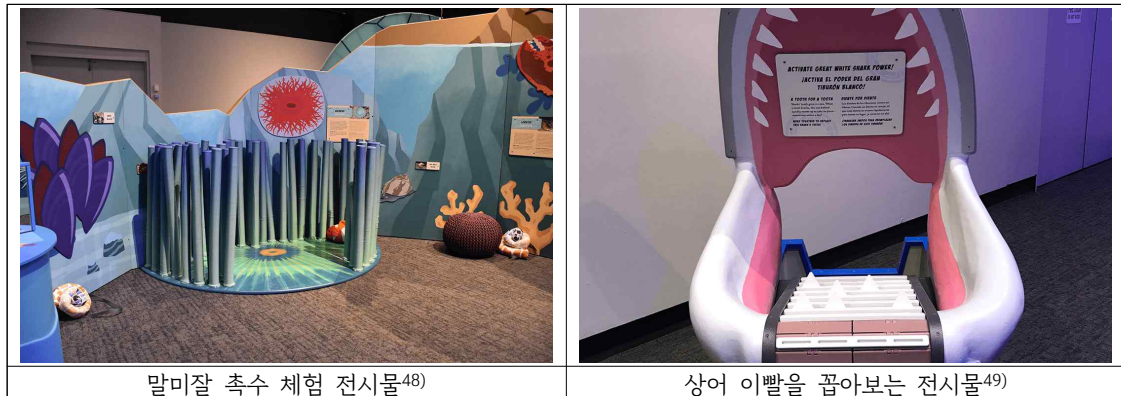
44)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shaun-the-sheep-flock-this-way/>

45)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shaun-the-sheep-flock-this-way/>

46)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shaun-the-sheep-flock-this-way/>

③ 와일드 크래츠: 바다 모험!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방문객들은 Wild Kratts®의 세계로 뛰어들어 해안, 얕은 바다, 깊은 바다를 포함한 세 가지 바다 환경에서 놀라운 생물의 삶을 탐험할 수 있다. 놀라운 바다 생물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탐험하고 그들은 서식지에 생물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말미잘 속을 기어다니고, 랍스터처럼 점심을 사냥하고, 돌고래 이름을 만들고, 조수 웅덩이에서 미니어처를 만들고, 바다 바닥의 생물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⁴⁷⁾



[그림 18]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와일드 크래츠 : 바다 모험’ 순회 전시

④ 토마스와 친구들: 기차를 탐험해 보세요!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인기 있는 어린이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로, 소도르 섬에서 토마스와 친구들팀에 관람객들이 합류하여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STEM 문해력 기술을 익힌다. 토마스의 대형 모델에 올라타 기관차의 내부 작동을 살펴보고, 기관차 차장으로 옷을 입고 기차표를 판매하고, 함께 일하여 화물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기관차의 엔진을 정비하여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관람객들은 거대한 트랙을 따라 기차 경주도 할 수 있다.⁵⁰⁾



[그림 19]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토마스와 친구들’ 순회 전시

47)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ocean-adventure-the-exhibit/>
 48)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ocean-adventure-the-exhibit/>
 49)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wild-kratts-ocean-adventure-the-exhibit/>
 50)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thomas-and-friends-traveling-exhibit/>
 51)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thomas-and-friends-traveling-exhibit/>
 52)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thomas-and-friends-traveling-exhibit/>

⑤ 공룡: 불과 얼음의 땅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공룡 시대를 체험할 수 있다. 생소한 풍경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만질 수 있는 공룡을 만나서 아동들은 화석을 파고, 늪지대와 흘러내리는 화산을 체험하고, 얼음 지형을 오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백악기 말의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이 전시는 아동들이 공룡에 대한 타고난 호기심을 키우는 동시에 과학적 사고와 학습을 장려한다.⁵³⁾ 순회 전시로 제작이 어려울 수도 있음에도 단품 형식으로 어린 유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전시물을 구성하였다. 마이애미 어린이박물관에서 기획한 ‘공룡과 함께 포효하고 탐험하세요’ 전시와는 연출이 다소 상이하게 공룡이 되어보는 활동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티라노사우루스 타보기 전시물⁵⁴⁾

시조새 옷입어보는 체험활동⁵⁵⁾

[그림 20]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공룡 : 불과 얼음의 땅’ 순회 전시

⑥ 프레임 : 예술 속으로 들어가다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작가 4인 그랜트 우드, 클레멘타인 헌터, 존 싱어 서전트, 디에고 리베라의 유명한 그림 입체 세계로 들어가 예술 세계 속에 빠져들 수 있다. 클레멘타인 헌터의 거대한 수탉을 타고, 존 싱어 서전트의 캐나다 록키 산맥에 캠프를 세우고,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에서 배고픈 농부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⁵⁶⁾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 작품을 친근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이다.



작가 존 싱어 사전트 작품속에 있는 듯이
1916년 캐나다 록키 산맥에 있는 캠프 여행 체험⁵⁷⁾

작가 디에고 리베라의 옥수수 축제 체험
- 멕시코 시에 있는 디에고 리베라의 프레스코화의
한 부분에 묘사된 축하 꽃탑에 꽃과 옥수수 껍질
달아보기⁵⁸⁾

[그림 21]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 ‘프레임 : 예술 속으로 들어가다’ 순회 전시

53)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dinosaurs-traveling-exhibit/>

54)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dinosaurs-traveling-exhibit/>

55)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dinosaurs-traveling-exhi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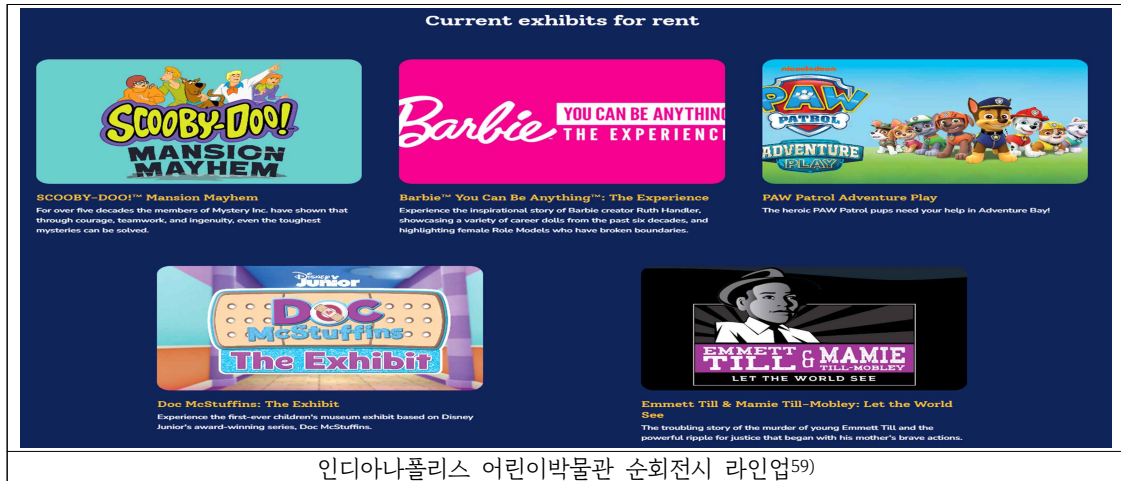
56)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framed-traveling-exhibit/>

57)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framed-traveling-exhibit/>

58) <https://rentexhibits.mcm.org/traveling-exhibits-page/framed-traveling-exhibit/>

(3)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

현재 홈페이지내에 5종의 유아 초등 대상의 순회전이 있다.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스코비 두, 바비 인형의 직업들, 공익 직업군인 패트롤 어드벤처, 수의사 놀이의 닥터, 아동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엠메트 킬 마미 전시이다.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 순회전시 라인업⁵⁹⁾

[그림 22]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박물관 순회전시 라인업

(4) ACM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순회전

- 크게 생각하고 크게 구축하세요: 몰입형 블록 세계 (Box Blox LLC)
- 바다로 향하다 (Sciencenter)
- 여기에서 저기까지 (Sciencenter) - 육지, 바다, 공중의 운동들
- 흡혈귀의 공격! (Sciencenter) - 흡혈귀가 물어뜯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
- 빌딩 버디 (Sciencenter) - 실습형 롤플레이팅 학습 경험의 몰입형 전시
- 레오나르도의 연구실 (Sciencenter)
- 트리하우스: 나무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Sciencenter)- 나무 역할
- 질문자: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놀자! (DuPage 어린이 박물관) - 캐릭터의 학습 경험
- 겨울 원더랜드 (마이애미 어린이 박물관) - 마이애미에서 느껴보는 겨울의 기쁨
- 땅콩 조심하세요: 전시회 (마이애미 어린이 박물관) - 인기있는 땅콩 ‘돌봄’을 통해서 새로운 여행 전시 상호 돌봄과 지구 돌봄 알기
- 과학 + 당신 (콜 어린이 박물관) - 놀이, 탐험, 발견, 실험
- 네이처 캣: 뒤돌과 그 너머 (콜 어린이 박물관) - 뒷마당의 자연에서 고양이 놀이

이외에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 순회전이 라인에 들어가 있다.

59) <https://www.childrensmuseum.org/traveling-exhibits>

[표 1] ACM 순회전(60)

<p>크게 생각하고 크게 구축하세요: 울엄형 블록 세계</p> <p>Box Blox의 THINK BIG BUILD BIG은 유쾌하고 매력적인 독특한 블록 세계 전시 경험입니다.</p> <p>조직: Box Blox LLC 도시: 스프링필드 주(도): 미주리 국가: 미국</p>		
<p>바다로 향하다</p> <p>당신은 바다를 보보하기 위해 유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Ocean Bound에서 알아보세요!</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레오나르도의 연구실</p> <p>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와 발명가에게 활력의 '보태상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신세계에 해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겨울 원더랜드</p> <p>달콤한 추억은 당신의 장소에 겨울의 기쁨을 가져다주세요!</p> <p>조직: 아이메이 어린이 박물관 도시: 아이메이 주(도): 콜로라도 국가: 미국</p>
<p>여기에서 저기까지</p> <p>육지, 바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순종의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트리하우스: 나무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p> <p>TreeHouses는 나무의 중요한 역할을 탐험할 수 있는 재미있고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땅콩 조심하세요: 전시회</p> <p>인기 있는 Peanuts "Take Care"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이메이 어린이 박물관의 새로운 특별 허가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시료를 돌보는 방법, 그리고 지구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p> <p>조직: 아이메이 어린이 박물관 도시: 아이메이 주(도): 콜로라도 국가: 미국</p>
<p>흡혈귀의 공격!</p> <p>이 소름 끼치는 전시회를 통해 무엇이 당신을 물어뜯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세요!</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질문자: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놀자!</p> <p>사람들은 Questioners 캐릭터와 독창적인 학습 경험을 만나보세요.</p> <p>조직: DuPage 어린이 박물관 도시: 데이비드 주(도): 일리노이 국가: 미국</p>	<p>과학 + 당신</p> <p>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놀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p> <p>조직: 올 어린이 박물관 도시: 올랜도 주(도): 플로리다 국가: 미국</p>
<p>빌딩 Buddies</p> <p>Building Buddies는 실용형 동물레밍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울엄형 전시입니다.</p> <p>조직: Sciencenter 도시: 이타카 주(도): 뉴욕 국가: 미국</p>		<p>네이처 캣: 뒤돌고 그 너머</p> <p>자연에 대해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연의 힘과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 놀라운 전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스크린 포스트를 지나가며 뛰어난 자연 탐험가인 Nature Cat으로 변신하세요! Nature Cat의 친구 중 한 명으로 분장하고 숨겨진 동물, 식물, 곤충을 탐험하세요. 로널드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네이처가 못 발을 만드는 것을 보고, 발의 놀라운 디스크를 찾는 재미를 느껴보세요.</p> <p>조직: 올 어린이 박물관 도시: 올랜도 주(도): 플로리다 국가: 미국</p>
ACM 순회전 라인업		

2. 국내의 순회 전시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난 우리집 귀염둥이 (반려동물)

전시를 기획할 당시인 2013년에 경기도민의 5:1 즉 5가구 중에서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아질 추세를 고려하여, 학예팀장으로써 이 전시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전시가 추진되었고, 1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철거하게 되었으나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진 전시라 전부 폐기 처분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일부들을 보수하여서 국내의 순회전으로 무상 렌탈하도록 검토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유치 기관들 사정에 따라서 2개월부터 4개월까지 각 기관에 순회 되었다. 북쪽 최끝인 전곡선사박물관에서부터 남단 끝인 제주교육박물관까지 총 8개 기관(국립춘천박물관, 하남문화재단, 판교박물관, 해남공룡박물관, 경주문화재단, 울산박물관)에 설치되었다. 또 다른 기획전인 조부모 전시도 순회전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폐기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어린이와 가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려동물과 관계를 형성하며, 돌봄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체험 전시이다. 반려동물의 옷을 입어보고 반려동물이 되어서 동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의도했다. 따스한 주인의 품속에도 안겨보고, 고양이처럼 가구 위를 기어다 가보고 동물의 표정을 보고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고, 가상으로 목욕을 시켜볼 수도 있게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지 않아서 키우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것도 다루어 보았다. 이외에 타 기관에서 순회전 팩트 시트를 같이 수록할 예정이라 본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난 우리집 귀염둥이' 전시장 입구 ⁶¹⁾	토끼에게 먹이주는 전시물 ⁶²⁾
	
반려동물 의상을 입어보기	고양이처럼 가구 위에 올라가보기
	
강아지 가상으로 목욕 시키기 (욕조와 드라이)	반려동물 정보 알아보기, 좌측) 게이지 속 2D 애니메이션 보기
	
내가 반려견처럼 주인의 품에 앉아보기	동물병원 방문해서 진찰하기
	
죽은 반려동물 애도하기, 편지써보기	상상의 반려동물 조합해서 그려보기

[그림 23]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난 우리집 귀염둥이' 순회 전시

61) <https://gcm.ggcf.kr/exhibitions/25>

62) <https://gcm.ggcf.kr/exhibitions/25>

III. 결 론

어린이박물관에서의 순회전은 미국이 어린이박물관의 원조국 이면서 가장 많은 보유국이라 가장 잘 활성화 되어 있다. 최근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 중의 하나가 박물관에서는 순회전이 될 수 있다. 인력이나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료 조사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받을 만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세상에서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다. 피츠버그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주제들과 연령대들이 고르게 갖춰져 있고 전시 연구를 통한 제작으로 알고 있어서 질이 매우 높은 기관이다. 미네소타 어린이박물관은 유아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발달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사례로 살펴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애완동물전은 10여년전의 주제였으나 매우 인기 있었고 점차 증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간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기획전 그리고 순회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어린이박물관에서 상호 기간 간의 시너지를 위해서 순회전이 활성화 되어보기를 기대한다.

체험전시 순회전과 문화 ESG 실천 (발표 요약문)

장화정 / 재미뮤제 대표, 전 서울상상나라 학예연구실장

1. 서론

본 발표에서 다룰 주제는 '어린이 체험전시 순회전의 문화 ESG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사례는 발표자가 서울상상나라와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고 운영한 순회형 체험전시입니다. 체험전시는 어린이박물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험전시를 활용한 순회전은 일반적인 체험전시와 다르게 이동을 위해 고려할 요소들이 많은 분야이고, 순회전을 통해서 전시 자원을 다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제 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학술대회)의 대주제인 '급변하는 박물관과 공동체의 미래'라는 맥락에서 다루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박물관의 전시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문화 ESG 실천은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온 오늘날 매우 의미 있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전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기능과 감수성 함양이라는 중장기적 효과를 가지므로, ESG 실천의 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문화 ESG의 개념과 적용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조직이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준입니다. 원래는 금융·투자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기업, 공공기관, 문화예술 영역, 박물관과 미술관에까지 확대되어 책임 있는 운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ESG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환경(E)은 친환경 제작, 자원 절약과 재활용, 탄소 배출 저감 등의 요소 포함
- 사회(S)는 문화 접근성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다양성과 포용성 실현
- 지배구조(G)는 투명한 운영, 공공성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포함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ESG의 위 개념 중 지배구조(G)라는 기업의 투자 관점 표현 대신 박물관 운영에 적합한 용어로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바꾸어 사용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ESG 개념이 문화예술, 교육,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적극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 ESG는 창작·전시·교육·운영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요소를 문화사업에 접목하는 시도는 최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 전시는 문화 향유의 형평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기후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응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사회 전 분야에 책임있게 수용되는 방향에서 대중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평

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협력적 책임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는 ESG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들과 리움미술관 등 주요 사립 문화기관 들에서도 전시와 프로그램, 전문가 교류와 교육 행사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체험전시 순회전의 문화 ESG 실천 : 서울상상나라와 삼성어린이박물관 사례

1) 서울상상나라 순회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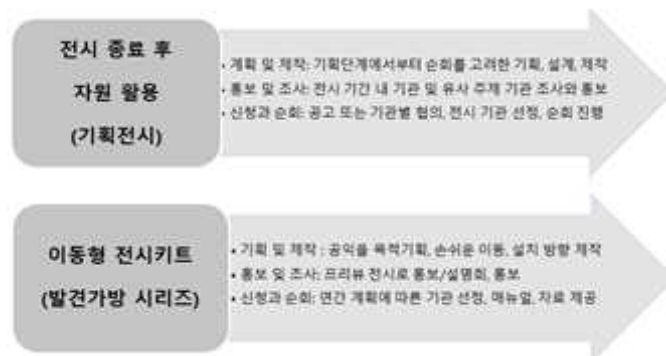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 대상 체험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3년 5월 서울시가 건립한 어린이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자체 기획하여 국내외에 순회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순회전 취지

- 서울상상나라 전시 기획 및 운영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된 전시의 종료 후 전시물을 활용하여 순회전시함으로써 전시 자원 가치 공유에 기여하고 기관의 공공적 역할 수행
- 아이돌봄 및 보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동형 전시키트를 서울시 내 서울형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순회하여 놀이형 체험전시 확산
- 체험전시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전시 자문과 교류 실천

• 순회전 종류

- 기획전 종료 후 자원 활용하는 방법, 이동형 전시키트로 개발하는 두 종류의 순회전 개발
- 개별 전시 특성에 따른 순회 계획 수립 후, 단계별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성과 창출



• 체계적 점검을 통한 환류 노력

- 전시물 개발 및 순회 전시 진행 과정에서 조사 및 계획과 실행, 점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보완의 프로세스로 진행



순회전 요구도 및 주제 분야를 위한 조사, 환경 분석	전시개발 일정, 세부 계획 및 제작과 홍보 등	순회전 특징 반영 : 이동/조립 용이하게 설계, 제작	완성품을 관내 전시·운영 후 타기관에 이동, 설치, 관찰·점검	기관 수요도, 대상별, 기관별 의견 수렴 환류 개선 및 보완
--	---------------------------------	--	---	--

• 순회전 사례

- 첫 번째 사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행중인 <발견가방> 시리즈 순회전입니다. 이들 전시는 기존 박물관 공간을 떠나 이동형 가방, 상자, 또는 모듈형 테이블 형태로 구성된 소규모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과학관,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에서 쉽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감각적 예술 체험과 작품 감상, 기초 수학 개념 학습을 놀이 중심으로 풀어내며, 참여형 체험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순회 이력	이미지
<발견가방Ⅰ - 예술놀이> (2019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예술놀이 · 구성 : 전시품 4점 (캐비닛형 3점, 손가방형 1점) · 내용 : 예술 장르의 기초 개념을 놀이로 경험하고 심미적 감수성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이동형 전시물 · 순회 기관 : 총 18개 기관 	 <p><2019 발견가방-예술놀이 프리뷰 전></p>
<발견가방Ⅱ - 장욱진의 그림상자> (2022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현대미술 작품의 재구성 · 구성 : 조립형 액자 1점(이동형 케이스 2점) · 내용 : 어린이가 장욱진 작가가 되어 작품 속 요소를 재구성하여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전시물 · 기획 : 서울상상나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순회 기관 : 총 4개 기관 	 <p><2022 발견가방-장욱진의 그림상자></p>
<발견가방Ⅲ - 수학놀이> (2024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수학놀이 · 구성 : 전시품 4점 · 내용 : 수학놀이 마켓을 콘셉트로 수학의 개념을 놀이 요소로 경험하는 마켓, 공예공방, 수학게임, 요리 속 수학 전시 · 순회 기관 : 총 3개 기관 	 <p><2024 발견가방-예술놀이 프리뷰 전></p>

<표 1> 서울상상나라 순회전 ‘발견가방’ 시리즈

- 발견가방 시리즈 중 기관 협력 사례로서, 서울상상나라-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한 <발견가방-장욱진의 그림상자> 순회전이 있습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보유한 장욱진 작가의 작품과 서울상상나라의 놀이형 체험 전시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여 공동 기획·개발한 이동형 전시물을 두 기관에서 전시 후 교차하여 순회 전시한 후 2025년 서울형 키즈카페 2개 기관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서울상상나라 5주년 기념 기획전시로 개발하여 1년간 전시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양주 어린이비전센터 순회전으로 진행된 <마음아, 안녕!> 전시입니다. 어린이의 감정 표현, 자기 이해, 타인과의 소통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체험전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공공의 협력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마음아, 안녕! 전시 전경, 서울상상나라>

서울상상나라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타 박물관, 과학관 등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순회전은타기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구분	전 시 명	순회 기관	기간	참여인원
2021	발견가방-예술놀이	서초구립양재도서관	21/11/03~22/02/28	22,525명
2022	따리따리 컴퓨터세상	국립광주과학관	22/04/05~23/02/19	51,492명
	마음아, 안녕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19/11월 ~22/06/30	22,879명
	발견가방-예술놀이	관악구열린육아방	22/04/05~22/07/01	459명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2/07/20~22/09/30	6,062명
2023	따리따리 컴퓨터세상	노원수학문화관	23/03/12~	28,521명
	5개의 집과 30개의 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3/04/28~23/08/31	26,052명
	발견가방-예술놀이	중랑구 육아중	23/03/16~23/06/01	6,915명
		금천구 아이세상놀이터	23/06/07~23/07/22	820명
		금천구 새길과학놀이터	23/07/28~23/08/30	560명
2024	발견가방-예술놀이	영등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24/01/31~24/09/30	-
	발견가방-수학놀이마켓	서울상상나라 프리뷰전	24/10월 ~ 24/12월	-

<표 2> 2021~2024 서울상상나라 순회전 개최 이력

- 또 다른 사례로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기획한 「열 두 상자와 떠나는 화폐 여행」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화폐의 역사와 가치, 경제 개념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총 15기관에서 순회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삼성어린이박물관의 운영 종료 후 서울상상나라로 이관되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총 7개 기관과 중국 해남에서 순회 운영되었습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18년간 운영되면서 국내 어린이박물관과 체험전시 전파에 기여하였으며, 순회전시는 효과적으로 공익적 실천을 한 사례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진 자료는 발표시 현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 ESG 요소별 순회전 실천 내용 분석

1) 환경(Environment)

서울상상나라 순회전은 친환경적인 전시 제작 및 운영을 목표로 개발하고 실행하였습니다.

- 전시 구조물은 조립·해체가 용이한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순회 전시마다 자원을 새로 제작하지 않

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시 구성물의 소재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합판과 천, 플라스틱을 사용하였고, 페인트와 인쇄물도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 전시는 모든 연령대 아동의 참여를 고려해 다양한 난이도의 활동 키트를 함께 제공하며, 교사 및 보호자를 위한 운영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전시 이동 경로와 일정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운영 전략도 병행하였습니다.
- <발견가방> 시리즈는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가방형 전시로 설계되어, 이동 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으로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방 외장은 지속 가능한 소재(재활용 가능 목재)를 활용하였으며, 활동 도구 역시 플라스틱, 천, 나무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2) 사회(Social)

사회적 가치 실현은 순회전시의 핵심 개념이며 운영 목표입니다.

-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문화 접근성이 낮은 아동에게 고품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높이 조절 가능한 전시대, 시각, 청각, 촉각 중심 콘텐츠 등 포용적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 각 지역의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공형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회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 교사와 강사들이 전시 해설 및 연계 교육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 효과도 도모하였습니다.

3)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

전시 운영은 서울상상나라와 각 순회 지역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 서울상상나라는 2가지 종류의 순회전 방식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 기획 및 예산 집행을 진행하였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선 개발된 전시의 경우는 순회기간에 무료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으며, 매 순회전시마다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존중과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삼성어린이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 및 초등학교, 문화교육기관과의 협력 MOU를 통해 전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시 개발 예산은 체험 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선 집행기관에서 책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개발하여 전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순회전 운영 시에 전시 예산은 서울시, 문화재단, 기관 예산이 개별 조건에 따라 운영 실행 차원에서 반영되었습니다.
- 관람객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전시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참여적인 운영 구조를 실현하였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서울상상나라와 삼성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 순회전 사례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가 문화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환경을 고려한 제작과 운영,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콘텐츠 설계, 협력적이고 투명한 공공의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 ESG 실천의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회형 체험전시는 단순히 전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아동의 ESG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교육적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이 생겨난 지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의 회원관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박물관과 문화기관들이 협력하여 문화 ESG 실천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실천 사례를 다양하게 축적해 나간다면 박물관 공동체와 여전히 발전중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의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공익법인이나 재단과 같은 공공 분야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모두를 위한 다감각 체험전시 <내 마음은 풀 full>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효기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모두를 위한 다감각 체험전시 <내 마음은 풀 full>
2. <내 마음은 풀 full> 외부 순회전시
3.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연계 프로그램

III. 결 론

부록.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 순회전시

I. 서 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끝자락에 별의 모습으로 자리한다. 전시는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을 중심 주제로 하고, ‘숲’이란 키워드를 반영한 이야기식(Story-tell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으로 나뉜다. 1층은 ‘고대의 숲’을 주제로 ‘공룡존’과 ‘클라이머존(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몸속을 탐험하는 체험시설)’, ‘바다 놀이터(영유아존)’, 2층은 ‘현재의 숲’을 주제로 ‘숲생태존’, ‘오감숲존’, 그리고 기획전시 공간이 있다.

박물관의 전반적인 전시와 교육 콘텐츠는 ‘숲’, ‘생태’, ‘환경’을 키워드로 하여 어린이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하도록 기획되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박물관을 경험하며, 생태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을 자연스레 익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기관 특성에 따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지역과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태와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어린이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야기이며, 어린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린이박물관에서 꼭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는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생태·환경에 관련한 고유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성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자연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감하며, 환경친화적 생활 습관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2021년 「오감이 환경 동화」 시리즈(전 5권)를 발간하여,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1>(2022년)과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2023년)을 2회 전시하고, 지금까지 6번의 순회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내 마음은 풀 full>을 전시하고 올해 5개의 기관에서 차례로 외부 순회전시를 진행하며, 연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오감이 환경 동화」 기반의 박물관 콘텐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어린이의 손으로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력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내 마음은 풀 full>은 자연을 감각으로 받아들여, 공존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식물을 관찰하고, 향기를 맡고, 자연물을 만져보는 등 다감각 체험을 통해 무장에 전시로서 어린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본고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자연 요소의 다감각 체험을 기반한 <내 마음의 풀 full>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어린이 모두를 위하여 문화예술 접근성을 향상한 포용적 전시(무장애 전시)로써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1>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전경과 전시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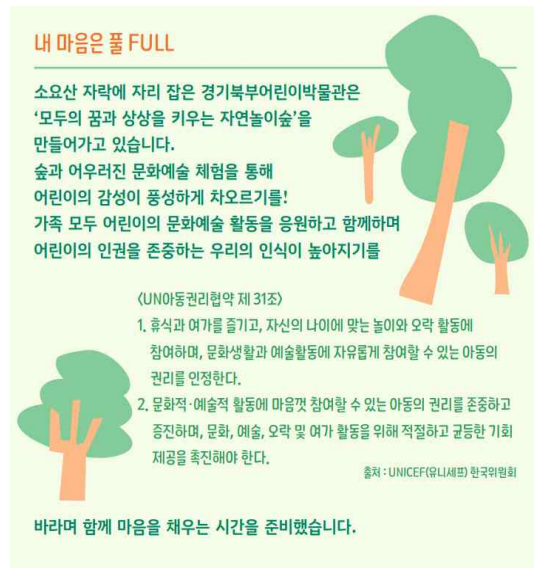
1. 모두를 위한 다감각 체험전시 <내 마음은 풀 Full>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는 2024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⁶³⁾에 따라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증진’ 실현을 위해 <내 마음은 풀 full>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모두의 꿈과 상상을 키우는 자연 놀이 숲’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자연 감성을 풍성하게 채우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내 마음의 풀 full>에서 ‘풀 full’이란, ‘풀잎’의 ‘풀’과 ‘채운다’란 의미의 ‘full’이 함께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전시를 통해 어린이가 자연과 더불어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 가득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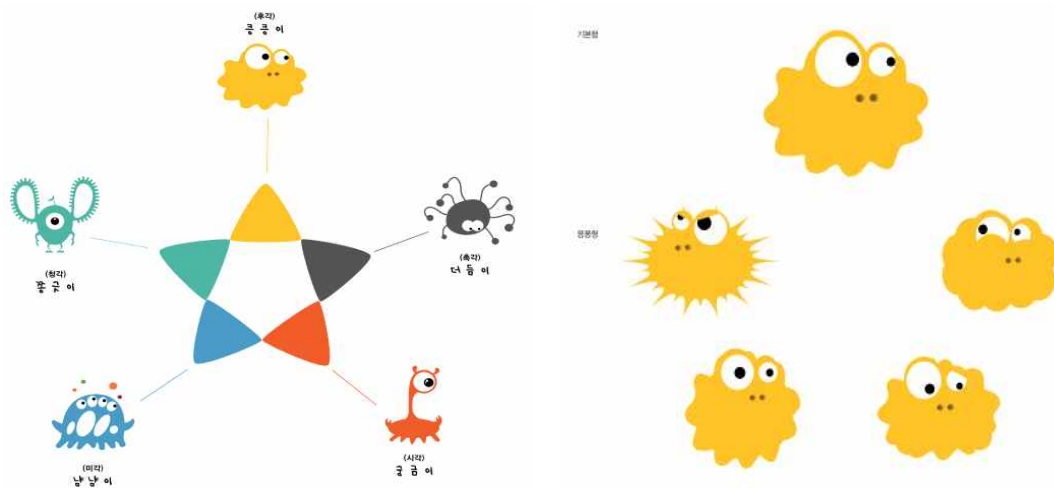
6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그림 2> <내 마음은 풀 full> 어린이날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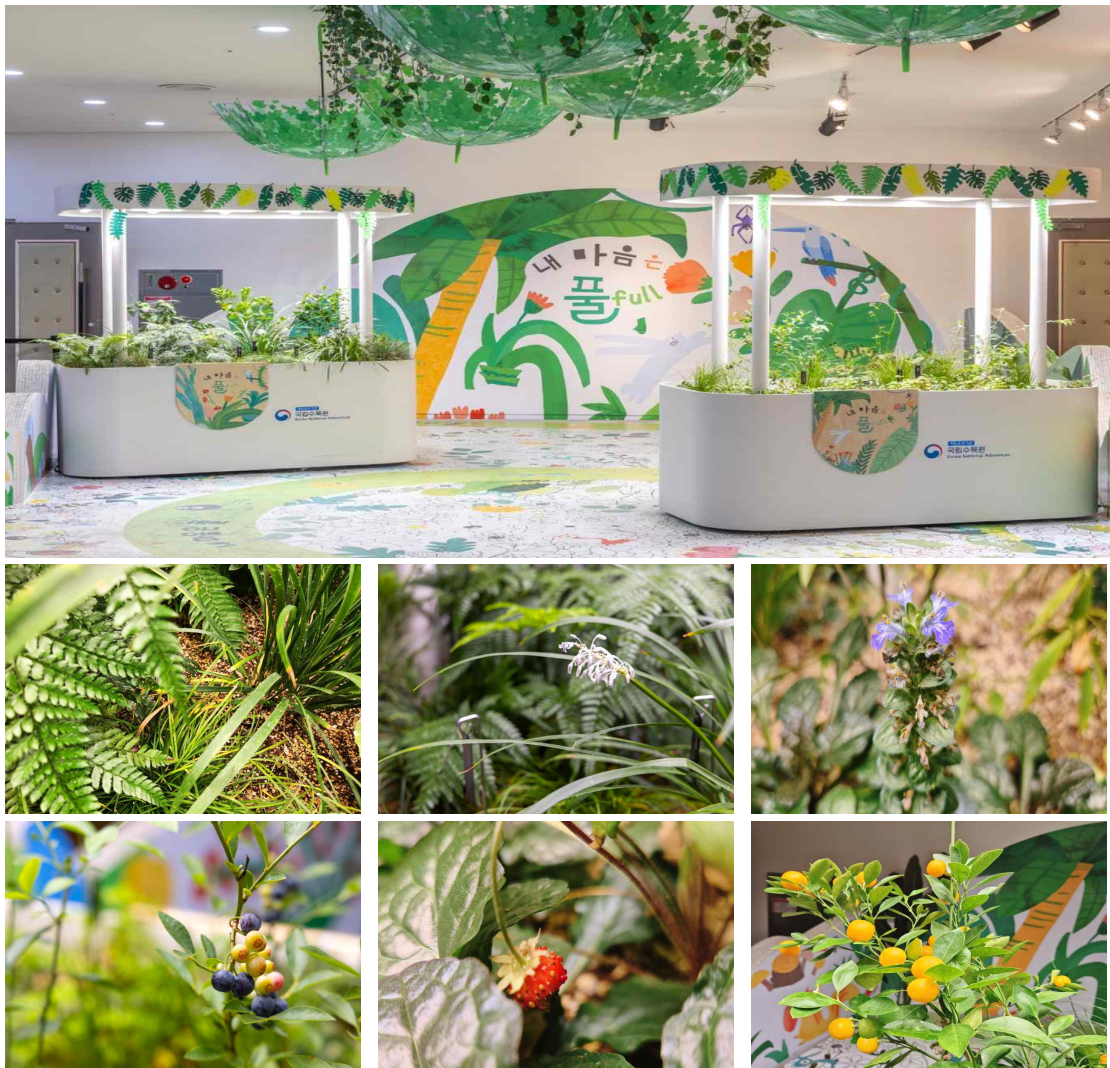
특히 <내 마음은 풀 full>은 다감각 체험을 통해 모든 어린이 위한 무장애 전시를 지향한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캐릭터는 숲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미생물을 형태적 모티브로 삼아, 각각의 오감의 기능을 부여한 ‘콩콩이(후각)’, ‘쫑긋이(청각)’, ‘더듬이(촉각)’, ‘남남이(미각)’, ‘궁금이(시각)’로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함께 ‘오감이’라고 부른다. <내 마음은 풀 full>은 박물관 캐릭터인 ‘오감이’를 반영하여 무장애 전시를 위한 다감각 체험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박물관의 고유한 콘텐츠로 개발되었다.



<그림 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캐릭터 ‘오감이’

<내 마음은 풀 full>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층 카멜레존과 2층 공간에 전시되었다. 1층 카멜레존의 전시는 국립수목원에서 고유종을 심은 플랜트 박스 2대와 세밀화 10점을 대여하여(24.7.15~24.11.25 약 4개월), 우리나라의 고유종을 직접 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실내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랜트 박스를 제공하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가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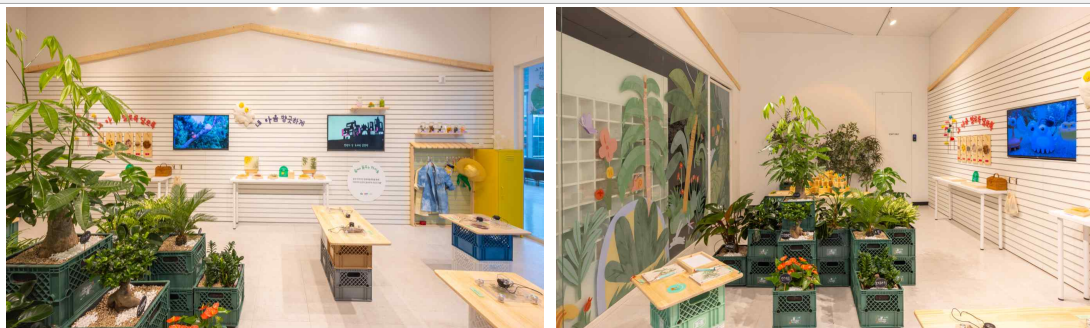
전시 식물은 잎의 모양이 지네와 비슷해 질감이 독특한 ‘각시톱지네고사리’, 잎이 반들반들한 상록 덩굴 ‘마삭줄’, 잎의 털이 굵어 거친 질감에 노란 꽃이 매력적인 ‘털머위’ 등으로 향기와 촉각을 자극한 형태와 질감을 가진 식물들로 어린이가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림 4> 국립수목원이 지원한 플랜트 박스와 자생식물

박물관 2층 전시는 교육 체험형 전시로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간의 변화 및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사진



공간구성	사 진	
<p><내 마음은 풀 Full> (입구) 숲과 어우러져 내 마음의 감성이 가득 채워지기를</p>		
<p><숲의 아이가 되어> (탐험 도구) 숲과 어우러진 내 마음의 감성을 찾아서 도구를 챙겨 숲으로 가자</p>		
<p><숲길 따라서> (식물 정보) 숲속 풀잎이 전하는 이야기로 호기심을 채우다</p>		
<p><숲 풀내음으로 마음을 채우다> (풀잎향기체험) 풀내음으로 마음을 향긋하게 채우다</p>		
<p><풀잎으로 자연감성을 채우다> (루페활용 식물관찰) 실제 식물을 관찰하며, 자연감성을 채우다</p>		

<p><소요산을 초록으로 채우다> (모형나무심기) 소요산에 채우다</p>	 
<p><숲 풀색으로 마음을 채우다> (염색천 위빙체험) 풀색 (자연의 색)으로 마음을 색으로 채우다</p>	 
<p><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올랐지?> (출구) 내 마음에 자연 감성이 차올랐는지 생각하며 마무리</p>	 

<표 1>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구성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은 시각적 요소가 주를 이룬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내 마음은 풀 full> 다감각 전시를 위해 시각 이외의 나머지 감각을 어떻게 적용하여 경험하게 할 것인가는 전시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를 위하여 전시에 자연물을 활용한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감각 요소를 넣어 자연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감각		전시 요소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전반적인 요소에 반영 - 씨앗, 줄기, 열매, 잎 모양 등 생김새를 육안이나 확대경으로 관찰
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 비누 작품을 시향지에 문질러 자연 향을 간접적 경험 - 사췌(향기 주머니)로 향기 체험 - (플랜트 박스) 열매가 익었을 때 단면을 관찰하며 향기 체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공간에 다양한 새 소리 등 자연의 소리 등 체험
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식물을 만져보고, 잎 모양과 잎맥 등을 촉각으로 느끼게 함 - 국립수목원 세밀화를 바탕으로 프로타주용 요철 감각 등 체험

<표 2> <내 마음은 풀 full> 감각과 전시 요소 연계

<내 마음은 풀 full>에서 ‘다각각을 활용한 무장애 전시’의 의미는 장애 아동도 전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어린이 발달 시기에 따른 특성과 각자의 다른 성향, 속도를 가진 어린이 모두가 감각을 통해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괄한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전시’을 위해 어린이박물관이 할 수 있는 포용적 역할이라고 보았다. 어린이가 전시 공간에 머물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속도에 따라 좀 더 느긋하게 전시를 관람하며, 다각각적 경험을 통해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두가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 <내 마음은 풀 full> 운영 사진

<내 마음의 풀 full> 전시의 핵심은 어린이가 자연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식물과 자연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아보는 등 다양한 감각으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심미적 체험뿐만 아니라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배우고, 자연을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감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내 마음은 풀 full>은 자연이 다양한 모습을 담고자 계절에 따른 요소의 변화를 준다. ‘소요산에 나무를 채우다’는 소요산의 실제 등고선 모양을 따서 만든 전시물에 나무를 채워 숲을 만드는 공간으로 계절에 따라 나무의 색을 바꾸어 ‘초록 숲’, ‘단풍 숲’, ‘겨울 숲’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숲, 풀 내음으로 마음을 채우다’는 허브를 담은 비누 작품 전시물을 시향지에 문질러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향을 체험하는데, 비누 작품이 어린이의 활동으로 소진된 후에는 사체 스톤⁶⁴⁾에 허브향을 담은 사체(향기 주머니)를 통해 더 다양한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숲의 다양한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청각적 요소의 변화를 주어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다각각적 감각 체험을 이끌었다.

64)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윤모계 광석을 가열해 만든 것으로, 향을 잘 흡수하고 발향시키는 특성을 가진 천연 암석



<그림 6>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요소의 변화

<내 마음의 풀 full>은 전시 형태를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박물관 사정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전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획 전시와는 다르게 <내 마음은 풀 full>은 박물관 고유의 콘텐츠이자 브랜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변형이 가능한 전시물의 모듈화를 위해 활용한 것은 우유 상자다. 치수가 규격화된 우유 상자는 연결을 통한 넓이 조정과 적재를 통한 높이 조절이 쉽다. 지난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 전시에서도 허니콤보드를 재료로 미로 전시물을 공간에 따라 모듈화한 바 있다. 허니콤보드와 같이 친환경적 재료이면 좋았겠지만, 실제 식물 식재를 위해서는 무게와 습기에 강한 내구성이 필요했고, 맞춤 제작 등의 비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우유 상자의 활용이 공간에 따라 변형, 축소, 확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5개의 기관에 외부 순회전시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소요산과 옥상정원 등 자연 친화적으로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다.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특히 야외 활동에 대한 조건은 더 까다롭다. 실제로 지난 3~4월 봄을 맞아 주말 프로그램으로 <자연에 숨은 친구 찾기>라는 야외프로그램을 9회 배정하였으나, 날씨 상황으로 인해 이 중 4회가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자연물이 전시 요소로 적용된 <내 마음의 풀 full>은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한 요소를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내 마음은 풀 full> 외부 순회 전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올해 3월부터 <내 마음의 풀 full>의 외부 순회전시를 시작하였다. 소재지에 따른 지역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감각을 열어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3월 국립어린이박물관과 평택문화재단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5월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전시 중이며, 판교환경생태학습원(8월 예정)과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11월 예정)에서 차례대로 순회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 마음은 풀 full>은 생태와 환경이 주제이므로 전시 자원의 순환이라는 점에서 순회전시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어린이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전시’로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접근성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의미도 있다.

각 순회 기관의 전시실 규모나 조건은 차이가 크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식물의 식재량과 전시물의 크기와 수량을 조정하여 구성하는데, 우유 상자를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확대와 축소가 가능했다.

또한 외부 순회전시에서 <내 마음의 풀 full>의 기획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각 기관에서 추가적인 연출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관의 특성이나 인력 현황, 지역에서의 역할 등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이전의 순회전시를 통해 각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알맞게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전시와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내 마음의 풀 full> 전시 또한 각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하여, 어린이 관람객에게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관	사 진
국립어린이박물관 <Art-Lab>	
	
	
	
평택문화재단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표 3> <내 마음의 풀 full> 외부 순회 전시 모습

<내 마음의 풀 full>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지난해 8월 시작으로 약 6만 5천여 명이 관람하고, 순회전시를 통해 약 4천 500명이 관람하였다. 앞으로도 외부 순회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가 전시를 경험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환경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연계 프로그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는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와 관련하여, 자연물을 통한 감각 활용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가. <내 마음 향긋하게>

허브 향기를 매개로 한 자연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후각과 시각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를 전반적으로 관람하되, 후각 체험 전시물을 천천히 깊이 감상하도록 한다. 교육실로 이동하여 나이나 구성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 허브 비누 만들기 : 약이나 향료로 써왔던 허브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허브의 향기를 알아본다. 좋아하는 향기를 조합하여 허브 비누를 만든다. 가족 단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 2) 사쎄(향기 주머니) 만들기 : 다양한 아로마 향기를 알아보고, 사쎄 스톤에 좋아 하는 향기를 조합하여 사쎄를 만든다. 사쎄 봉투는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협력한 식물 그림 도장을 활용하여 꾸미고,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모두 가능하다.



<그림 7> <내 마음 향긋하게> 운영 사진

나. 짹 짹 탐험대

새소리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새의 생태를 알아보고 생물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청각과 시각을 활용한 전시 탐험 프로그램이다. ‘숲생태존’의 새의 생태, ‘오감숲존’의 새소리, 중정 유리 벽에 설치된 <산(散)>(박수현 작가) 버드세이버, <내 마음은 풀 full>의 전반적 전시를 활용하며, 청각각에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관람한다. 전시실에 숨겨진 새 먹이를 찾아 채집하고, 목각 새 피리도 만들어 본다.



<그림 8> < 짹짹 탐험대 > 운영 사진

다.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발달장애 아동 등 문화취약계층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다.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에서 자연물의 모양새, 촉감, 향기, 소리 등 다양한 감각 활동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자극하고, 자연의 재료로 나의 얼굴을 표현하는 다감각적 예술 경험을 한다. 자연물을 만져보고 ‘식물 자화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촉각에 깊이 몰입하여 활동한다.

3~4월에 운영된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는 총 11회를 운영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어린이의 ‘식물 자화상’ 작품은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전시하고, 참여자들을 어린이 작가로서 초청하였다.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반영된 작품을 매개로 관람객과 소통하며, 어린이 작가로서 성취 경험주고자 한다.





<그림 9>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운영 사진



<그림 10>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프로그램명		감각
내 마음 향긋하게	허브 비누 만들기	 후각  (시각, 청각, 촉각)  
	사쉴(향기 주머니) 만들기	
짹 짹 탐험대		 청각  (시각, 촉각, 후각)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촉각  (시각, 후각, 청각)  

<표 4> <내 마음은 풀 full> 연계 프로그램의 감각 요소

III. 결 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숲과 어우러진 정체성을 반영한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를 기획하고, 외부 순회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 마음은 풀 full>은 숲, 자연, 생태를 기반으로 어린이의 자연 감성 성장을 위한 박물관 고유 콘텐츠이며 브랜드다. 최근 AI나 실감 콘텐츠 등 디지털 요소를 반영한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내 마음은 풀 full>은 지극히 아날로그적 요소에 집중했다. 어린이가 자연물 자체를 매개로 하여 공존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생태 감수성을 높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풀 full>은 간단한 제목과 식물명 정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 특별한 설명글 넣지 않았다. 어린이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 경험을 원했기 때문이다. 단지 감각을 활용해 자연물 그대로,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전시를 감상하면 된다. 어린이 관람객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시실에 달려 들어와 꽃잎을 확대경으로 관찰하고, 식물의 잎을 만져보고, 새소리를 듣고, 소요산에 나무를 가득 채웠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다감각을 활용한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로 어린이 모두의 전시 경험이 가능하게 하여 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포용성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부 순회전시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하는 각 기관과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에게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풍성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어린이가 자연을 감각으로 느껴 본 경험들은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첫 단추와도 같다.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 마음은 풀 full>의 전시명과 같이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란다.

- 표 목차 -


- <표 1>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구성
- <표 2> <내 마음은 풀 full> 감각과 전시 요소 연계
- <표 3> <내 마음은 풀 full> 외부 순회전시 모습
- <표 4> <내 마음은 풀 full> 연계 프로그램의 감각 요소

- 그림 목차 -

- <그림 1>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전경과 전시실
- <그림 2> <내 마음은 풀 full> 어린이날 홍보물
- <그림 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캐릭터 '오감이'
- <그림 4> 국립수목원 협찬 플랜트 박스와 자생식물
- <그림 5> <내 마음은 풀 full> 운영 사진
- <그림 6> <내 마음은 풀 full> 전시 요소의 변화
- <그림 7> <내 마음 향긋하게> 운영 사진
- <그림 8> < 짹짹 탐험대 > 운영 사진
- <그림 9> <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 운영 사진
- <그림 10> <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 > 결과물 전시 사진

부록.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 순회전시


2022년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1>에 이어 2023년 오감이 환경 동화 『정말로 소중한 건』 (멸종위기 동물), 『바다와 약속해』 (해양오염)의 주제와 관련하여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을 전시했다. 어린이가 생명 다양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말로 소중한 건』
김희정 작가

멸종위기 동물과 생명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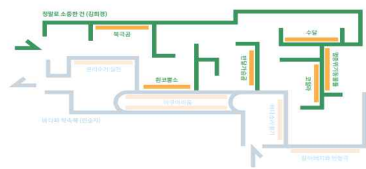
- 인간의 환경 파괴와 오염에 의해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에 대해 인식하고,
-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 동물이 멸종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동물의 이탄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건』
김희정 작가

멸종위기 동물과 생명 다양성

- 인간의 환경 파괴와 오염에 의해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에 대해 인식하고,
-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 동물이 멸종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동물의 이탄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바다와 약속해』
민송지 작가

바다오염과 생명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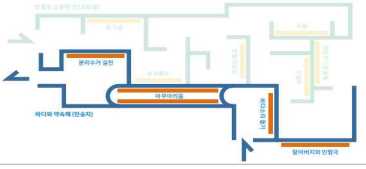
- 바다 쓰레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이 생태계 전체로 퍼지면서 바다 생물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고,
- 바다에 버섯속 생명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합니다.



『바다와 약속해』
민송지 작가

바다오염과 생명 다양성

- 바다 쓰레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이 생태계 전체로 퍼지면서 바다 생물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고,
- 바다에 버섯속 생명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합니다.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전시 구성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3~8월까지 3,6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 종료 후 순회전시를 운영하였다. 목공 구조였던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1>은 순회 기관의 공간에 따라 변형이 어려웠다. 때문에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은 미로형 전시로 이후 진행될 순회전시를 고려해 주 재료를 허니콤보드로 하고 공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모듈형으로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에 따라 미로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었으며, 재료의 특성상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이동으로 인한 손상에도 쉽게 보수 가능했다.

2023년 11월 ~ 2024년 9월까지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2023.11.1~2024.3.17.), 판교환경생태학습원(2024.3.19~2024.6.30),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2024.7.9~2024.9.29)에서 3회의 순회전시를 통해 3만여 명의 어린이를 만났다.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관



▲ 판교환경생태학습원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관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순회전시 운영 사진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 2 : 소중한 약속>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전시 주제인 ‘숲’과 더불어 최근 강조되는 친환경 패러다임 속에서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다. 특히 순회전시를 통해 전시 자원을 순환하고, 환경과 생태를 공통 주제로 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친환경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과학관 공동 기획

<별꿀 : 왜 이렇게 생겼어?> 순회전

인천어린이과학관 학예연구사 강철규

<별꿀 : 왜 이렇게 생겼어?>는 2023년도 과학관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을 위해 인천 어린이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서울시립과학관-국립해양과학관이 함께 기획·제작한 전시이다.

1년간의 전시기획기간을 거쳐 총 18종의 전시물이 제작되었으며, 기획에 참여한 기관에 우선으로 전시한 후 전국의 과학관·박물관·교육기관으로 순회전시를 위해 기획되었다.

2023년 12월 인천어린이과학관을 시작으로 6월 서울시립과학관, 9월 국립과천과학관, 11월 국립해양과학관을 거쳐 국립대구과학관, 홍천생명건강과학관 등 전국으로 순회전시 중에 있다.

별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생물의 형태에 대해 은유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왜?”에 대한 답을 위해 전시기획을 시작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과학관 공동 기획에 대한 전체 과정과 <별꿀 : 왜 이렇게 생겼어?>의 기획과정을 정리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목 차

공동 전시연구 제 1장

1. 과학관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
2. 전시기획 프로세스

전시 콘텐츠 소개 제 2장

1. 모든 사물의 역사 시리즈
2. 별꼴 : 왜 이렇게 생겼어?

제 1 장 공동 전시연구

과학관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은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이 기획전시 사업 협력 회의 중 누군가 손을 내밀며 시작되었다.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전시를 이야기 중 서로가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의 유사함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다른 시각을 공유하며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기획하게 되었을 때, 전시기획 역량강화, 예산절감의 효과, 기획 기간의 단축 등 협력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기대되어 공동 전시연구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9년부터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이 함께 전시기획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매년 공동 연구를 통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1. 과학관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

가. 사업소개

- 1) 참여대상: 국 · 공립 · 사립 과학관, 박물관 등 전시기획 인력 보유기관
- 2) 사업기간: 전시별 1년
- 3) 사업비용: 기관별 20,000천원~70,000원 투자
- 4) 현재 참여기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나. 전시현황

년도	전시명	참여기관
2019	갈릴레오 특별전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2020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2021	모든 사물의 역사 II (병원)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2022	모든 사물의 역사 III (학교)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2023	별꼴 : 왜 이렇게 생겼어?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 국립해양과학관
2024	과학마블 탐구여행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 · 국립해양과학관
2025	(가제) 심해와 우주	· 인천어린이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해양과학관 ※ 추가기관 모집중

다. 공동 전시연구 업무협약(MOU)

1) 협약배경

공동 기획을 통해 기획된 갈릴레오 특별전 전시물 활용과 관련하여 상호 전시 콘텐츠 이용시 예산 집행 및 협력업무 고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2) 협약일: 2019. 10. 1.

3) 협약기관: 인천어린이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서울시립과학관



<업무협약식(2019.10.1.)>



<업무협약서>

2. 전시기획 프로세스

가. 기획회의 조건

- 첫째, 반드시 의제를 미리 공지할 것.
- 둘째, 의제는 반드시 준비해 올 것(★매우중요★)
- 셋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 다섯째, 확실하게 의견을 말할 것.(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 여섯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관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

나. 기획과정



①브레인 스토밍

- 아이디어를 모은다.
- 이때 가감 없이 이야기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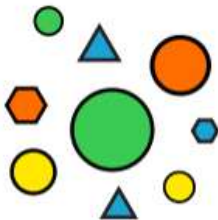
②전시 주제 선정

- 관람대상, 시의성, 체험성을 고려
- 기획자의 전문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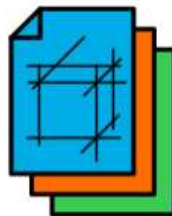
③사례 연구

- 전시콘텐츠, 전시공간, 연출 사례 등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한다.



④아이템 선정

- 7관별 전시 아이템을 모은다.
- 이때 눈치보지 말고 원하는 아이 텍스트를 고른다.



⑤개념 설계

- 전시물 디자인, 공간연출, 등 전시를 설계한다.
- 재료, 디자인에 통일감을 준다.



⑥전시품 제작 설치

- 설계된 자료를 근거로 전시물 제작 및 공간 연출을 실시한다.
- 모든 제작과정을 공유한다.

다. 전시기획 회의

1) 전시기획 TF구성

- 각 기관별 전시물 디자인·설계, 공간연출, 홍보관련 담당자 지정하여 역학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를 구성한다.

2) 프로젝트 매니저(PM) 선정

- 전시기획 과정 전반에 대한 기관별 의견조율과 일정관리, 전시 제작·설치에 대한 총괄 매니저(PM)를 지정하여 사업관리를 실시
- 제작 완료 후 순회전시 일정 관리 및 수요기관 모집 담당

3) 정기 워크숍

- 전시를 위한 주제선정, 아이템선정, 공간연출 검토 등 전시기획 전반에 대한 기획회의 진행
- 매월 1-2회의 정기적인 전시기획 워크숍을 실시(대면/비대면)
 - ※ 참여기관별 돌아가며 주관하며, 해당 기관에서 참석공문 발송

4) 결과 공유

- 앞서 언급한 기획회의 조건을 충족하며, 매 회의 후 정리된 결과는 주관기관 기획담당자가 정리하여 공유



<전시기획 워크숍>

라. 전시기획 일정

- 1) 전시기획을 1월에 시작하여 11월경 전시오픈을 목표로 기획이 추진되며, 각 기관의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계약방법(입찰/수의), 업무진행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매월 진행되는 회의때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여 수정한다.
- 2) 전시제작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이하 협상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협상계약의 경우 최소 45일의 계약기간을 가지며, 경쟁적 대화의 경우 2차례의 대화 절차를 갖기 때문에 60일을 기본으로 일정을 고려한다.
- 3) 제작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며, 이유는 업체 선정 이후 사업 착수시 실시설계 기간 10-15일, 실물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최소 40일 가량이 소요됨을 고려하였다.
※ 사업비가 적을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인건비 증가로 전시물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어려움으로 억지로 길게 잡지 않도록 한다.
- 4) 앞서 1)-4)까지의 이유로 가장 입찰을 진행해야하는 기관이 우선하여 발주하며, 6월부터는 입찰 과정에 들어가도록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전시기획 일정(11월 중순 오픈 예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기획회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기관별 검토		주제선정		전시아이템 정리		전시아이템카드 작성		연출(연) 검토		기본(연) 검토		공동회의(전시물)		안출회의		안출회의		제작상황 점검		현장설치 완료	
제작물					아이템 조사		아이템카드 초안 작성		아이템카드 보완		제출물 설계 및 보완				제출물 발주 & 제작		제출물 현장설치					
연 출									연출안명 도출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		평면도 작성 및 수정				구조물 발주 & 제작		현장설치			
그래픽														그래픽 목록 정리 주요 제설 작성 & 디자인				발주 & 제작		현장설치		
영상													영상 목록 정리		출력방식 검토		시나리오 작성		발주 & 제작		현장설치	
소모품 등 집기류																	소모품 및 집기류 결정		발주 & 제작		현장설치	
홍보물															인쇄도출		디자인 & 수정		발주&제작		현장설치	

전시오픈

인천 계약관련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제작계약수입																						
입찰공고																						
입제신청																						
전시제작																						

전시오픈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 사업 일정표 >

제 2 장 전시콘텐츠 소개

과학관 공동 연구기획 순회전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있다. 해당 전시 콘텐츠는 기획 참여기관들에 전시 후 전국의 과학관·박물관, 교육기관 등에 순회전시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공동 연구를 통해 기획한 대표 콘텐츠 소개이다.

1. 모든 사물의 역사 시리즈

가. 전시개요

1) 전시현황

전시명	제작연도	소요예산	전시구성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2020	194,316천원	총 21종
모든 사물의 역사 II (병원)	2021	228,843천원	총 20종
모든 사물의 역사 III (학교)	2022	175,483천원	총 18종







2) 참여기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나. 기획의도

- “보리까끄라기라도 쓸모가 있다” 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사물들의 이야기를 그려보고자 했다.
- 우리가 누리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물들이 발명되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사물들의 역사와 그 속에 숨은 과학원리를 표현하고자 한다.
- 모든 사물의 역사 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집, 병원, 학교로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다. 전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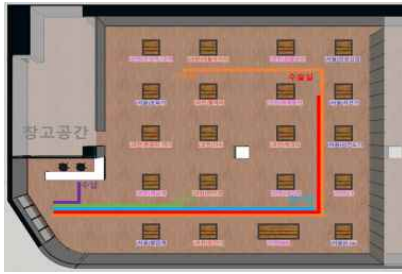
1) 전시물

시리즈명	집	병원	학교
전시물수	21	20	18
대표전시물			
			

2) 공간구성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좌-공간설계 / 우-현장모습



모든 사물의 역사 II (병원) 좌-공간설계 / 우-현장모습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좌-공간설계 / 우-현장모습>

라. 순회전시: 15회

전시명	기관명	전시기간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인천어린이과학관	' 20.12.01.(화)-' 21.04.18.(일)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국립과천과학관	' 21.04.27.(화)-07.11.(일)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서울시립과학관	' 21.09.08.(목)-10.11.(화)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충남과학교육원	' 21.10.19.(화)-' 22.02.20.(일)
모든 사물의 역사 I <집>	전북과학교육원	' 22.04.05.(화)-' 22.08.31.(수)
모든 사물의 역사II<병원>	인천어린이과학관	' 21.10.09.(토)-' 22.03.30.(수)
모든 사물의 역사II<병원>	서울시립과학관	' 22.04.19.(화)-' 22.08.28.(일)
모든 사물의 역사II<병원>	충남과학교육원	' 22.09.20.(화)-' 22.10.30.(일)
모든 사물의 역사II<병원>	국립과천과학관	' 22.11.11.(금)-' 22.12.25.(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인천어린이과학관	' 22.12.21.(수)-' 23.04.30.(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서울시립과학관	' 23.05.19.(금)-' 23.08.27.(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국립과천과학관	' 23.09.15.(금)-' 23.10.29.(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충남과학교육원	' 23.11.07.(화)-' 24.01.28.(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국립대구과학관	' 24.02.20.(화)-' 24.06.16.(일)
모든 사물의 역사III<학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 24.09.03.(화)-' 24.11.24.(일)

2. 별꼴 : 왜 이렇게 생겼어?

가. 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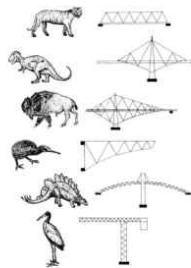
- 1) 제작시기: 2023. 12.
- 2) 참여기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생물 표본 협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3) 기획인원: 13명(인천3, 과천4, 서울5, 해양1)
- 4) 기획기간: 2023. 1.-11.(약 11개월)
- 5) 전시기간: (인천) 2023. 12. 20.-2024. 5. 15.
- 6) 참여인원: (인천) 28,890명
- 7) 소요예산: 207,208천원(인천어린이과학관: 88,008천원)
- 8) 전시구성: 총 17종

나. 전시내용

1) 기획의도

- 별꼴 : 왜 이렇게 생겼어? 특별전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원초적인 질문인 “왜 이렇게 생겼어?”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전달하는 전시로, 다양한 생물들의 생김새, 습성, 움직임 등 생물의 전반적인 형태학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제공 한다.
- 또한 형태학적 측면에서 고생대와 신생대 생물의 유사성을 알아보고, 생물의 형태가 그 생물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 진화해 온 것을 배워본다.

2) 전시의 원형이 된 참고 도서



형태의 기원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양의 탄생과 진화

- ▶ 저 자 크리스토퍼 윌리엄스
- ▶ 번 역 고현석
- ▶ 출 판 이데아
- ▶ 발 행 2023.04.10.

3) 전시 시나리오

형태학[morphology]

생물의 형태, 구조, 발생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일반적으로 해부학과 발생학을 합쳐 이르며, 생물의 구조나 외형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연구대상에 따라 세포학·조직학·해부학 등으로 나뉘며, 수렴 진화와 같이 진화의 결과를 이해하는 개념에도 적용된다.

동물의 생김새



#1 육 지	#2 하 늘	#3 수 중
▶ 원숭이-팔	▶ 비둘기-날개	▶ 상어-비늘
▶ 고양이-뼈 구조	▶ 잠자리-눈	▶ 귀상어-감각기관
▶ 유혈목이-이빨	▶ 이크티오르니스-부리	▶ 전기뱀장어-전기세포
▶ 북극곰-털	▶ 올빼미-목	▶ 암모나이트-껍데기
▶ 이크티오스테가-척추	▶ 독수리-뼈	▶ 틸로사우르스-색
▶ 에드몬토사우르스-턱	▶ 프테라노돈-날개	

어린이들의 원초적인 질문 “왜 이렇게 생겼어?”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전달하는 전시

생물의 형태학적 특징(생김새, 습성, 움직임 등)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제공

4) 전시구성: 17종



<고양이>

<유혈목이>

<긴팔원숭이>



<이크티오스테가>

<북극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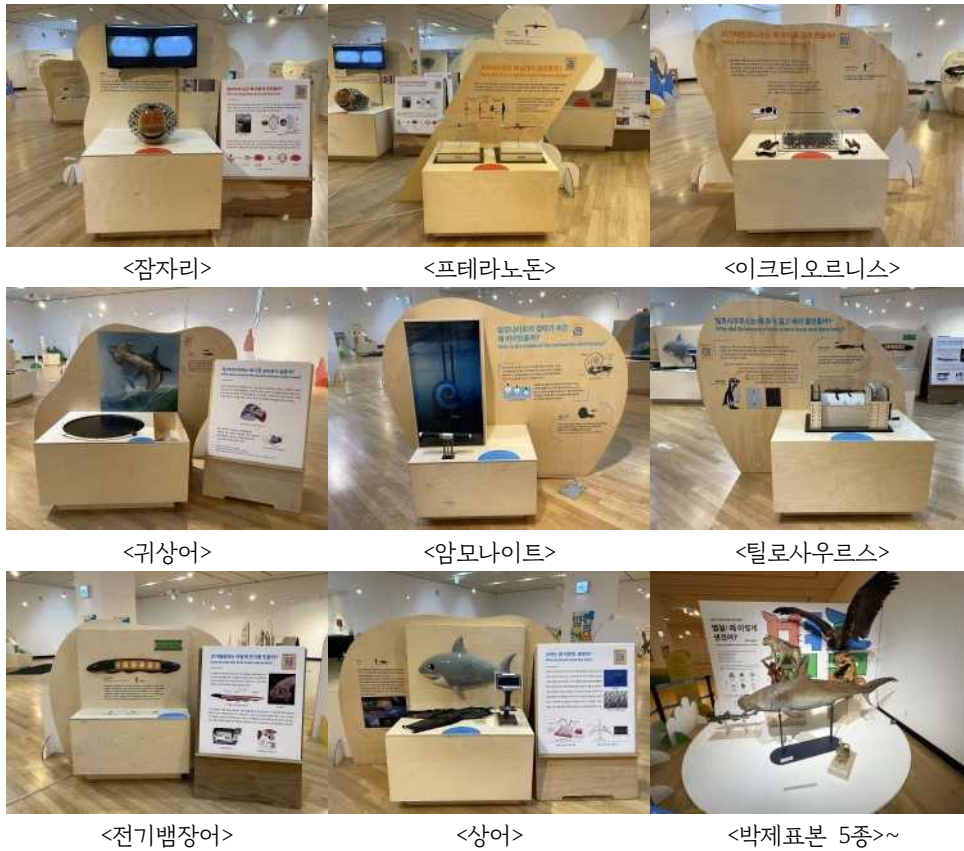
<에드몬토사우르스>



<독수리>

<올빼미>

<비둘기>



5) 공간연출

- 전시기획 단계에서 사전에 순회전시 참여기관에 맞도록 공간설계 실시

※ 인천어린이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장 구조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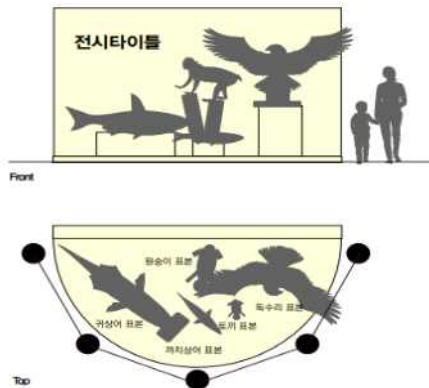


인천어린이과학관 공간연출 좌-배치도, 우-전경



서울시립과학관 공간연출 좌-배치도, 우-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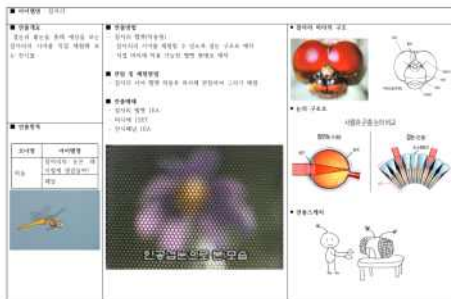
- 어린이들의 전시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호기심 유발을 위한 전시초입 전시를 구성하는 대표생물의 박제표본으로 Intro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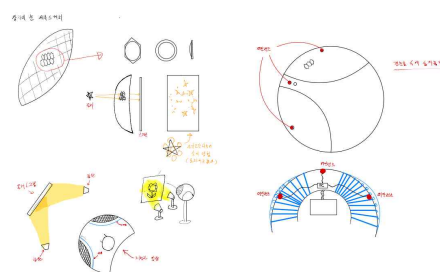
전시초입 Intro- 생물표본 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협찬>

6) 전시물 디자인

- 최초 작성된 아이템 카드를 바탕으로 전시물을 스케치한다.
- ☞ 영성하더라도 간단한 개념도가 있으면 전시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아이템카드 <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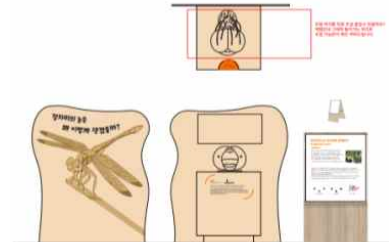


아이디어 스케치

- 스케치를 바탕으로 전시물의 형태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전시대와 패널 디자인을 실시한다. 패널의 경우 사전에 윤문/영문번역까지 완료하여 디자인이 시작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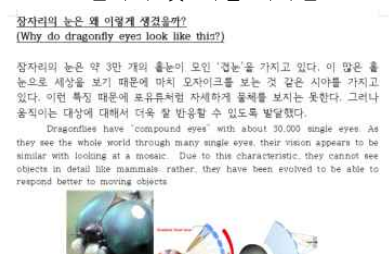
<전시대 개념도 - 잠자리>



<전시대 및 패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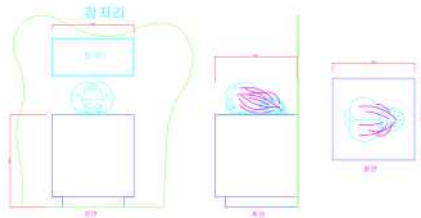


<패널 윤문작업>



<영문 번역작업>

- 선정된 제작사를 통해 전시물의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전시물의 작동의 실증을 위해 시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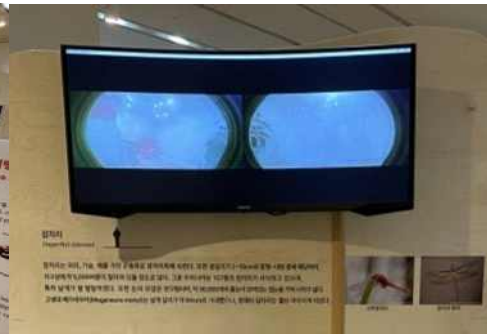
<설계 도면 - 잠자리>



<시제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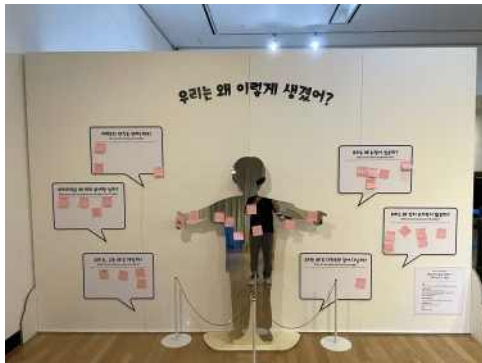


<제작된 전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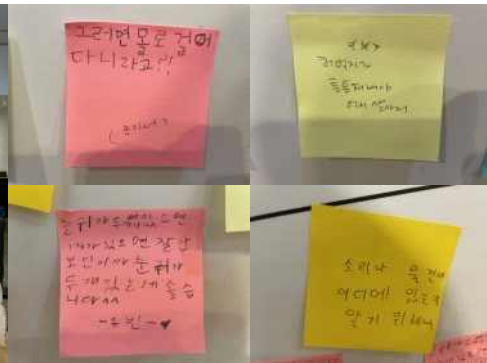


<구현된 잠자리의 360도 시야>

- 전시 마지막 우리몸의 생김새를 관찰하며, 우리몸의 각 부위별 생김새의 이유를 생각해보며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Outro-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어?’를 설정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어린이들의 답변>

다. 전시운영 사진



마. 홍보물



<전시 포스터>



<리플레>



<입구 대형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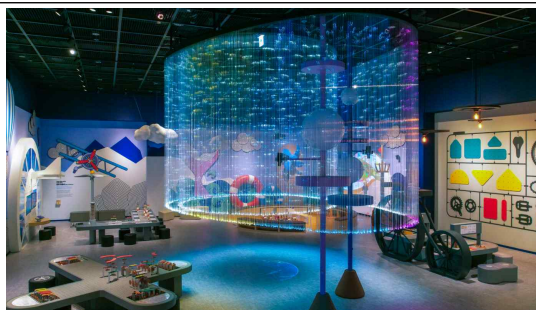
<현수막>

순회전 명칭 : <지구마을놀이터>

○ 개 요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낸 기계와 도구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어린이들은 다양한 기어를 조립하고 알아본다. 기어는 작가에게 의뢰하여 총 4종으로 이뤄져있고 각 종류마다 테이블이 있다. 전시를 강조해주는 탈 수 있는 아동용 자전거, 비행기 모형 일부, 자동차 모형 일부, 아동이 가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배 핸들이 있다.

- ◆ 소속기관 : 국립어린이박물관
- ◆ 전 시 품 : 7종
- ◆ 전시공간 : 약 30~50평
- ◆ 전시품 설명 : 인간이 발명한 도구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물로 ①자전거로 톱니바퀴를 움직여 그림 그리기 ②기어를 조합하여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이 가능한 랙과 피니언 테크니쳐 체험 ③다양한 회전운동을 체험하는 전시물 등으로 구성
- ◆ 전시품 사진



국립어린이박물관 지구마을놀이터1 전경



그림을 그리는 자전거



기어모듈 테크니쳐



하모노그래프 전시물

○ 순회 일정 : 2025. 10. 이후

○ 기타 주의사항 : 운송비, 소모품 비용 등은 수요기관 부담

○ 담당자 :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전시운영부 김경희 전임

(044-251-3053, harulike@nmcik.or.kr)

순회전시 : <유아 흡연위해 예방 놀이형 체험관>

○ 개 요

유아 흡연위해예방 놀이형 체험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의 하나로 유아기 흡연위해예방 창작동화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 다양한 놀이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3종 스토리(1종 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 2종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3종 노담밴드야 고마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이형 체험관에서는 담배의 위해성과 직접 흡연의 폐해 뿐 아니라 유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간접흡연에 대한 대처, 금연의 중요성 등 건강과 금연의 가치를 알리고 무사히 연주회를 마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탄 ‘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

- ◆ 튼튼섬 연주회를 향해 떠난 노담밴드 친구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게 되지만, 건강마을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해져 무사히 튼튼섬 연주회에 도착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 순회 일정 : 2025. 03. 18. ~ 2025. 12. 31.
- 순회장소 : 성남 잡월드 5F 메카이브
- 전시품 : 10종류
- 운영시간: 주중 및 주말 10:00 ~ 17:00 (매주 일요일 휴관)
- 관람료: 무료(주중 및 주말 자율관람)

○ 2탄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 ◆ 노담밴드 친구들이 연주회 참여를 위해 튼튼섬에 도착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금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순회 일정 : 2025. 03. 14. ~ 2025. 06. 08.
- 순회장소 :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 1층 도란도란쉼터
- 운영시간: 주중 및 주말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광주어린이과학관 입장권(트리플패스) 소지자 무료관람
- 전시품 : 10종류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은 ‘2025. 06. 18. ~ 2025. 11. 2’일정으로 부산어린이과학관에서 추가 순회전시 진행예정임

○ 3탄 ‘노담밴드야, 고마워!’

- ◆ 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의 후속편으로 자기네 마을로 돌아온 노담밴드가 오염의 원인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건강과 금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순회일정 : 2025. 03. 12. ~ 2025. 08. 24.
- 순회장소 : 인천 어린이과학관 2F 휴게홀
- 운영시간: 주중 및 주말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무료(인천어린이과학관 사이트에서 방문예약 후 주중 및 주말 자율관람)
- 전시품 : 10종류

- 대표 전시품 설명 및 사진 :

	
<p>[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연주회 가는 길] 노담밴드 동물들이 산과 숲 속을 지나는 장면을 모티브로 숲속을 거닐고 바람도 느끼며 동화 내용에 몰입을 도움</p>	<p>[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길:노담 건강 마을을 찾아서] uv랜턴 벽면에 비추어 건강한 생활습관이 담긴 건강표지판을 따라가며 미로에서 탈출하는 콘텐츠</p>
	
<p>[노담밴드야 고마워: 개미야, 걱정하지마] 미로형태의 동굴식 개미집에 아동들이 개미 모자를 쓰고 개미에게 병문안을 가는 활동</p>	<p>[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담배연기를 만나면] 담배연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콘텐츠로, 인체에 무해한 연기가 나오고 이를 피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p>

※문의처 :한국생산성본부 유아 흡연위해예방 놀이형 체험관 담당자 김지윤 위원(02-724-1124 / jiykim@kpc.or.kr)

순회전 명칭 :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선사시대로의 소소한 탐험>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피규어로 만나는 선사의 순간>

○ 개 요

전곡선사박물관의 ‘플레이 모빌 디오라마 및 모형’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구축한 채집과 사냥에서부터 건축과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선사 기술 문화’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쉽게 즐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고학자의 고증을 거쳐 제작한 정밀한 선사시대 모형이다. 2024년 전곡선사박물관의 기획전 <열렸다 수장고2-전곡석물점>에서 공개한 이후, 2024-2025년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선사시대로의 소소한 탐험>展과 2025년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피규어로 만나는 선사 순간>展에서 순회 중이다.

- ◆ 소속기관 :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 ◆ 전 시 품 : 16건 16점
- ◆ 소요공간 : 약 100~180㎡
- ◆ 전시품 설명 : 채집과 사냥, 건축과 예술 등 다양한 선사시대 문화를 플레이 모빌 디오라마로 구성하였다. ① 청동기 시대의 건축에서부터 ② 선사시대의 농경문화와 ③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스톤헨지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 ◆ 전시품 사진

	
<p>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순회전 전경</p>	<p>선사시대 집짓기</p>
	
<p>농사짓기</p>	<p>스톤헨지 만들기</p>

- 현 순회 일정 : 2025. 4. 18. ~ 7. 13. 까지
- 현 순회 전시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피규어로 만나는 선사 순간>
- 기타 주의사항 : 운송비, 소모품 비용 등은 수요기관 부담
- 담당자 :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031-830-5614, simboya@ggcf.or.kr)

제3차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학술대회
[어린이박물관과 순회전]

2025.5.16.

발행 김진희 회장

편집 김효기 사무국장

진행 한명희 간사

주소 경기 과천시 추사로 133 아해박물관

이메일 kcma2025@naver.com